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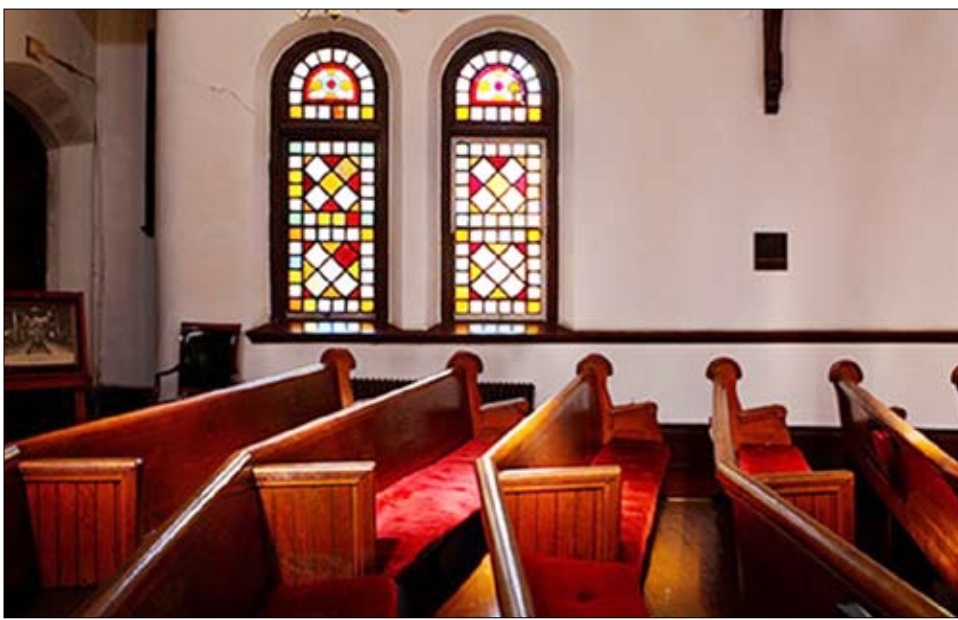
주후 2016년 9월 3일 (토) 제 159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종교적 “Nones” 증가...교회가 다시 품어야!

#### 퓨리서치, 신앙적 배경에서 자랐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 설문조사

최근 들어 미국 종교 지형 변화에 있어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년스(Nones)”의 증가다. ‘년스’는 어렸을 때는 교회공동체나 다른 종교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어떤 종교나 신앙 공동체와 연관이 없는 성인들을 말한다.

퓨리서치는 따라서 종교적 배경이 상이한 ‘년스’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해, 왜 신앙공동체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 결과 공통으로 요약되는 원인들이 있었다(Why America’s ‘nones’ left religion behind).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설문에 참여한 미 성인 중 반절에 해당되는 49%는 모태 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으나, 결국은 믿음의 결여로 종교와 등지게 됐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과학’을 알고나서부터 어떤 종교적 가르침들을 믿지 않게 됐거나, ‘상식’, ‘논리’ 또는 ‘증거 부족’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1/5은 제도화된 종교가 싫어서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공동체의 계급 구조(정점에서 고위 성직자로 시작돼 하위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로 이어지는)에서 회의를 느끼고, 신앙공동체가 너무 비즈니스처럼 느껴졌으며,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 추문 사건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또한 18% 정도는 종교적으로 확실하지 않기에 ‘년스’가 됐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믿겠다’며 어떠한 지역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거나, 성경과는 어긋나게 “각성하기 위해” 또는 “열린 마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종교가 아닌 “영적 유익”을 위해 신앙적 배경을 버리게 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년스’ 중 1/10은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으나 종교적으로 신앙공동체에서 예배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특정한 종교적 신념들은 있으나, 어떠한 신앙적 실천들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년스’들은 그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고, 너무 분주해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적 체계를

아직은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종교적 년스”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세 그룹들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을 무신론자로 정의하는 그룹  
△불가지론자로 정의하는 그룹  
△종교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그룹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년스’ 중 82%가 신앙적 배경에서 성장했고, 불가지론자들은 63% 그리고 종교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람들은 37%가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인가 뒤틀러왔거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으로, 신앙과 등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된다.

따라서 ‘년스’들이 말하는 종교를 떠나게 된 원인들을 소개한다:

- ▲더 이상 믿지 않는다
  - 진화론을 배우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와 멀어졌다.
  -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같지 않게 행동한다.
  -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약이다.
  -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종교는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다.
  - 창조론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과학적이거나 특별한 증거들이 없다.

〈3면으로 계속〉

### ‘스펙’ 위한 선교여행 너무하다!

#### NYT, 명문대학 입학위한 해외선교, 봉사활동 허실 보도(하)

하지만 동시에 다소 냉소적인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버드에 출강하는 아동 심리학자 리처드 바이스보드는 대학입학 전형을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를 꼼꼼히 분석한 적이 있다. 그가 인터뷰한 학부모 가운데는 보츠와나에 있는 고아원을 아예 사버린 돈 많은 학부모가 있었다. 고아원을 인수한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식에게 대입 자기소개서나 면접시험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례 중에는 같은 이유로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를 치료하는 의원을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값진 혜택이 많은데, 이런 활동이 점차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특권이 됐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만 되기 때문이다. 점점 활동은 요식적인 의무사항이 돼, 후다닥 해치운 뒤 급세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파머 처장도 이 점을 우려했다.

“격정스러운 점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억지로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고민한

### 재력 부모, 선교지 고아원/의원 사들이고 비영리단체 세우기도

사들이 학부모도 있었다.

“누가 하나 하면 남들도 따라 하게 되거든요.”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이 중요해지면서 나타난 폐해도 있다. 최근 들어 스스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훌륭한 단체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냥 단체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훨씬 체계적이고 효과적일 텐데도 스스로 무언가를 설립하면 리더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 나타난 부작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 여행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 어디에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과도 비슷하다. 선교 여행이나 스스로 무얼 세우는 행위 자체를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플힐의 스티븐 파머 학부 입학처장은 말했다. 파머 처장은 선교 활동이나 자선 활동,

뒤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만큼 얻는 것도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쫓기듯 이런 활동을 해치운다. 로드아일랜드 주 이스트 그리니치에 있는 록키힐 학교의 진학 상담부장 타라 도울링은 많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최소 몇 시간 이상 봉사활동 혹은 자선활동 등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학생들은 SAT 준비에 운동, 미술 등 방과 후 활동까지 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든 데도 말이다.

이러다 보니 중앙아메리카 어디든 잠깐 가서 무엇이든 한 뒤에 봉사활동 이력을 붙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그럴 만한 재력이 있다면)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과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 국민의 깊이가 부족한 학생?

〈3면으로 계속〉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현재 이란은...코란보단  
합합이 대세!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 Missional Responsibility of Korean Churches for the Nations

# 북미주 한인교회의 열방을 향한 선교적 역할

**제9차 IPCAN-2016**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 for All Nations

등록 문의: Tel: (314) 368-2832, email: LHS5678@gmail.com  
to Register: www.KIMNET.org/Registration\_Form

일정: 2016년 10월 19일(수)저녁 ~ 21일(금)저녁  
장소: 뉴욕 프라미스교회  
(비행) John F. Kennedy (JFK) 국제공항. 비행기표를 구입하신 후 항공기편과 도착시간을 알려 주시면 배편해 드립니다.)  
주소: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Tel: 71 8-321-7800, 314)368-2832 이현석목사 LHS5678@gmail.com  
주최: KIMNET, 주관: 프라미스교회 www.promise414.com

**선교도전**  
지역 강사: 한기홍 목사, 류용렬 목사, 김남수 목사

**선교지 도전 지역**      **이성민** 선교사 (캄보디아),  
강사: **이아브라함** 선교사 (독일), **강경찬** 선교사 (브라질)

**주제강의:**  
온미원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발제: 김경식 목사, 응답: 조애스나 선교사)  
한인교회의 다민족 선교전략 (발제: 홍성기 목사, 응답: 이상진 장로)  
기도 열방을 변화시키는 전략 (이현석 목사)  
청교도 영성 회복 (발제: 박희민 목사 응답: 이규선 목사)  
북미주 한인교회 시대적 사명 (발제: 송상철 목사 응답: 이은우 목사)  
이방 땅에서 선교적 전략 (발제: 마원석 박사 응답: 강성일 선교사)  
차세대 디아스포라 동역전략 (발제: 정민용 목사 응답: Jason 노 목사)  
이슬람의 미래와 선교 전략 (최바울 선교사)  
난민 사역을 통한 선교 전략 (이교희 선교사)

**네트워크별 사역 발표**  
1. 교회선교 교육 (장세균 선교사)  
2.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3. 교육선교 (송재원 목사)  
4. 캠퍼스 선교 (김다윗 선교사)

**각 선교단체 사역 보고**  
COME MISSION 이재환 선교사  
ICM: 김홍성 목사  
OM-K-AM: 김일원 선교사  
PGM: 김홍원 선교사  
WEC USA: 한영구 선교사

**패널 토의**  
인도: 이아금 선교사  
나성균 목사    박희민 목사  
송상철 목사    정민용 목사  
강성일 선교사    이성민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장세균 선교사

등록비: 1차(9월10까지 \$70, 호텔포함 \$300), 2차(9월30까지 \$100, 호텔포함 \$350)  
부스 신청: 1차 (\$150, \$350 1인 부스당당자 호텔, 식사포함) 2차 (\$200, \$400 호텔)



# 현재 이란은...코란보단 힙합이 대세!

## 뉴스위크, 이슬람종교법 불구 지하음악으로 번성하는 성장 배경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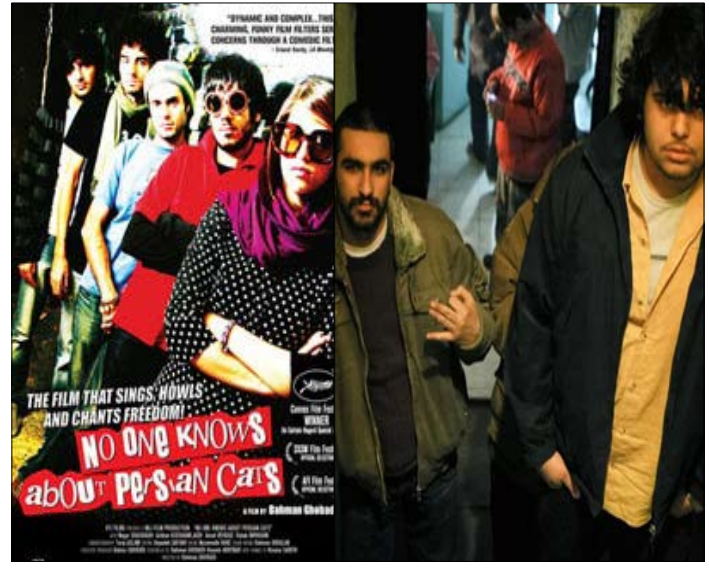
2014년 봄 어느 날 밤 선글라스와 형광색 운동화를 신은 청춘 남녀들이 옥상에서 미국 랩 가수 퍼렐 윌리엄스의 행복을 노래한 히트 싱글곡 'Happy'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그들은 파티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대수롭지 않은 파티 동영상인 데도 조회수 100만 회가 넘었다. 왜 그랬을까? 그 파티가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다.

거기엔 위험이 따랐다. 그 동영상은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란 당국은 파티에 참석한 젊은이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국영 TV에 나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 태형 91대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도 받았다. 당국은 그들을 풀어주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단단히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가수 윌리엄스는 언론에 "그 아이들이 내 노래 제목처럼 행복을 전파하려다가 체포됐다는 사실은 슬픔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제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 이란 젊은이들은 조국이 고립에서 탈피해 세계에 다시 합류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러나 다수는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란 법에 분통을 터뜨린다. 이러한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런 법 때문에 지하 세계에서 힙합 음악이 번성한다(IRANIAN RAP MUSIC FLOURISHES UNDERGROUND DESPITE STRICT RELIGIOUS LAWS IN TEHRAN).

'랩-이-파르시' 또는 '021 음악'(021은 테헤란의 전화 지역 번호를 가리킨다)으로 알려진 이란 힙합은 미국의 힙합처럼 소외감과 절망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이란 래퍼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활동했다. 은밀하게 음원을 팔고 비밀리에 공연을 했다. 이란의 힙합 프로듀서 마디야르 아가자니(27, 팬들 에겐 그냥 '마디야르'로 불린다)는 "이란엔 클럽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든 파티에 가면 랩 음악이 나온다."

6년 전 이란의 경찰청장 호세인 사제디아는 '021 음악'을 "도덕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젊은 래퍼 수십 명을 체포했다. 그 여파로 이란에서 가장 인기 높은 래퍼 몇 명은 본의 아니게



이란의 힙합 운동을 확산시킨 마디야르 아가자니(Mahdyar Aghajani, 오른쪽)는 당국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한다.

타를 원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게 바이올린을 안겨줬다."

마디야르는 바흐와 베토벤,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배웠고 어린이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했다. 그러나 11세가 되면서 그는 이란의 지독히 엄격한 법과 규정에 반항하는 표시로 공공장소의 벽낙서에 재미를 들었다. 2년 뒤 테헤란의 힙합 아티스트 몇 명을 우연히 만난 뒤엔 그도 랩을 하기 시작했다.

마디야르의 주도로 이란 힙합 운동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히치카스, 야스, 이르판, 살로메 MC(이란 최초의 여성 래퍼) 같은 힙합 아티스트가 등장했다. 요즘 이란인은 마디야르를 미국의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이자 유명한 힙합 그룹인 우탱 클랜의 실질적 리더인 RZA에 비유한다.

초창기의 이란 힙합은 사회적 반항을 주제로 삼긴 했지만 수준 이하였다. 마디야르는 "몇몇 래퍼들과 스튜디오에 갔는데 너무도 끔찍했다"고 돌이켰다. "아주 진부한 비트 일색이었다. 독창성은 전혀 없었다. 투박이나 비컨 같은 미국 래퍼들을 모방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음악을 사용했다. 정말 형편없었다."

마디야르는 그들에게 미국 랩을 모방하지 말고 좀 더 중동의 정서에 맞고 활력 넘치는 스타일을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 당국 '불법' 규정...아티스트 탄압해도 젊은이들 사이서 인기 누려

망명생활로 내몰렸다. 당시 당국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녹색운동'의 여파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녹색운동' 시위의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이란 당국의 힙합 단속도 느슨해졌다. 랩을 금지하는 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망명한 래퍼들은 원격으로 조국의 변화를 일으키려 애쓴다. 그들은 스카이프를 통해 이란에 음악을 전파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이란 힙합을 소개한다. 마디야르는 "우린 소규모 래퍼 커뮤니티로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테헤란의 지하 음악을 탐사한 2010년 '다큐멘터리 영화 '아무도 페르시아인 모른다(No One Knows About Persian Cats)'에

서 다뤄진 스타 중 한 명이였다. "이젠 랩을 하는 이란 동호인이 수천 명에 이른다. 힙합은 요즘 이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다."

마디야르는 테헤란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 후 성장한 그는 부모가 설치한 불법 위성 안테나를 통해 서양의 TV 프로그램을 봤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뮤직 비디오는 1979년 발표된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 'Another Brick in the Wall'였다. '우리에게 교육은 필요 없어. 우리 생각을 조종하려 들지 마. 교실에서 사악한 빈정거림을

멈춰'라는 가사로 유명한 뮤직 비디오였다. 마디야르는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라서 난 세 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에게 악기를 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 핑크 플로이드 같은 전기 기

그는 이란의 전통 대중가요, 고대 페르시아 음악, 파르시 시귀, 이슬람 신비주의에다 클래식 음악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혼합해 신나고 페르시아적인 랩을 창작했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조연 인생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명품 조연배우 오달수. 잘 생기지 못한 얼굴에 큰 머리, 좁은 어깨, 그리고 안면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점으로 한 번 보면 누구나 잊지 않는 사람.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루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영화배우 오달수에게 따라붙은 설명이다. 20대부터 연극 배우로만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 '올드보이'에 출연해서 그때부터 연기자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우스꽝스러운 외모 덕분에 주로 하루 인생과 주변부 인생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런 그가 영화 캐스팅 1순위의 배우이고, 조연으로만 출연해서 달성한 누적 관객이 1억5천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그가 조연으로 출연하기만 하면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된다. 그래서 그는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약방의 감초라 할 수 있다. 아니, 그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대박을 치는 것을 보면 약방의 산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영화에서 조연이란 주연이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의 성공은 조연으로서 철저하게 주연을 주연되게 만드는 프로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잘 나아 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 할 수만 있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다가 패박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나도 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패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본질은 겸손에 있다. 예수는 하늘 높은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스스로 조연의 자리에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셨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예수는 자기 백성이 주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스스로 조연을 택하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셨다. 예수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조차 그 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피를 먹여 주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설교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셨고 남김없이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는 진정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을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위대한 명품 조연의 길을 택하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은 바나바가 아닐까. 그는 교회 공동체가 주연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그가 파송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의 훌륭한 조연 덕에 큰 무리가 교회로 물려들었다. 그가 세계 기독교사에 남긴 가장 큰 족적은 포악하게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다가 변화 받은 사도 바울을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선교지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선교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준 일이다. 이런 바나바의 양보로 인해 1세기 세계 선교는 편만하게 달성되어 목표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2차로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문제를 바울과 갈라치게 된 것도 그의 조카를 위한 조연 인생을 선택한 결과였다. 누가 옳았느냐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바나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은 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바나바는 예수를 받아들이 명품 조연 인생을 일관되게 산 사람이다.

목회자 역시 배우로 말하면 조연 배우가 아닐까. 목회자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디 가서든지 대표기도를 하는 현실에서 조연 배우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스피커에 있어서는 조연의 길을 택할 수 있다. 목회자가 주연 배우의 스피커로 살면 교인들은 저절로 조연이나 영화 화면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조연으로 남아야 할 목회자들이 주연을 자처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교인들의 인생을 빛나는 주연으로 탄생시키기로 작정하고 목회자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주연 배우들이 탄생한다. 열심히 섬기는 교인들을 칭찬해주는 일에 민감하면 그들은 더욱 열심히 섬긴다. 좀 뒤처지는 교인들을 격려하면 그들은 힘을 내어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고, 병들어 고생하는 교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그 힘으로 병상을 차하고 일어난다. 시험이 든 교인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교회의 일꾼이 된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조연의 길을 택할 때 가장 큰 축복은 수많은 조연의 길을 택하는 교인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양 무리의 분이 되라"(벧전5:3).

danielkmin@yahoo.com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mailto: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mailto:ykko9191@yahoo.com)



### 종교적 "Nones" 증가...교회가 다시 풀어야!

(1면에서 계속)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나 목회자의 조언을 듣기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다.  
▲제도화된 종교는 싫다  
-제도화된 종교는 일치보다는 분열을 조성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은 악행들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나 혼자서 창조주와 대화한다.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저 돈만 밝히는 철저한 비즈니스다.  
-성직자들이 성 추문에 휩싸였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동성애가 싫다.  
▲종교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결단을 못한다  
-절대적으로 올바른 특별한 종교는 없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종교라고는 할 수 없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영적 훈련을 하고 있고, 어디서나 기도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휴면(inactive) 크리스천  
-대교회에 가고부터 교회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드리지 않는다.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

### '스펙' 위한 선교여행 너무하다!

(1면에서 계속)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돈으로 소위 지름길을 가게 해준 학부모? 도울일은 일단 학생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한다.  
"아이들은 아직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의 삶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선교여행 가운데는 원래 그 학생이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 성당에서 떠나는 아주 알차고 뜻 깊은 프로그램도 당연히 많이 있다. 반면에 다소 급조한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여행 말고도 무수히 많다. 좋은 캠프 프로그램도 있고,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페레즈는 트리니티칼리지에 접수

된 원서 가운데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에세이 한 편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학생은 여름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전까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네요. 자기가 카운터에서 주



문을 받아보니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사람들도 자기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 혹시나 극성인 부모님을 또 서둘러 동네 커피숍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든다. 페레즈가 한 말은 자녀에게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키라는 소리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고민하고 부딪혀야 깨달음을 얻고 자기만의 경험으로 체득해야 교훈을 새길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싶다면, 멀리 갈 것 없이 집안일부터 적당히 분담해서 같이 땀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  
사실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 많은 경험을 하며 자라고 있다. 에르난데즈처럼 말이다. 많은 친구들이 다른 나라로 요란한 여행을 떠나고 플린트의 YMCA에 남겨진 에르난데즈는 무척 외로웠다. 그러면서 도대체 1,000달러도 넘는 돈을 써가며 왕복 20시간도 더 걸리는 여정으로 과테말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120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지 수없이 자문해봤다고 한다. 답을 얻지는 못했다. 에르난데즈가 걱정된 건 하나 더 있다. 바로 그곳에도 있을 아이들이다.  
"돈 많은 미국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우르르 와서 같이 놀아주다가 며칠 만에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면, 그 아이들이 느낄 상실감은 누가 채워줄까요?"

### 현재 이란은...코란보단 힙합이 대세!

(2면에서 계속)  
그는 "가사와 메시지 대부분이 빈부 격차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에서 그런 문제는 정부와 터놓고 토론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랩이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 됐다."  
히치카스(30, 이란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중산층 출신 래퍼로 인기 높은 10년 전 그는 마디아르의 블로그를 읽은 뒤 그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뜻이 통했다. 그들은 음반 작업을 시작해 2006년 LP앨범 'The Asphalt Jungle'을 발표했다. 이란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어둡고 도발적인 앨범으로 정치와 거리의 청소년 문화, 성차별, 인종차별, 탄압 등의 사회 문제를 건드렸다. 그러나 미국 힙합과 달리 욕설도, 돈이나 마약, 섹스의 미화도 없었다. 그들은 그 앨범을 2000장씩 이틀 만에 다 팔았다.  
그들의 앨범은 이슬람 혁명 후 이란에서 성장하는 데 따르는 고뇌와 억압적인 실상, 실업의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당연히 당국은

그들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2006년 히치카스는 '랩을 한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여권을 압수당했다. 여권을 돌려받기까지 4년이 걸렸다.  
마디아르는 "체포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당국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가 녹음하는 모든 공공 스튜디오를 폐쇄했다. 당국은 히치카스가 이란의 지하 음악계와 젊은 세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를 집요하게 탄압했다. 그들은 그가 음악을 포기하길 원했다."  
정부의 압력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디아르와 히치카스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해외로 도피했다. 히치카스는 영국 런던에서 회계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으며 마디아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TV용 음악 프로듀서로 일한다. 그들은 이란 힙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해외에선 작품을 유통시키기가 더 쉽다. 마디아르는 "검열을 피하는 것은 '취와 고양이' 놀이와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늘 당국보다 한 걸음 앞선

다. 정부가 뭔가를 차단하면 곧바로 새로운 양이 등장한다."  
자국에서 은밀히 활동하거나 해외에 망명한 다른 이란 래퍼들처럼 그들은 힙합 음악으로 돈을 벌진 못했다. 마디아르는 "음악 판매는 약간 복잡하다"며 "나는 내가 좋아서 랩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팬대다수는 이란에 있다. 서방의 제재가 풀리긴 했지만 이란인은 아직 국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아티스트가 아이튠즈에 음원을 팔거나 스포티파이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랩은 이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래퍼가 음악을 팔아 돈을 받으려면 자신단체나 임의 계좌를 이용해 이란의 금융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란의 힙합 팬 대다수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다. 마디아르는 "무료가 기본인 지하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란 힙합 팬들은 그런 방식에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 올린다."  
마디아르와 히치카스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관중 1만 명

이상인 쇼에 출연하기도 한다. 그러나 테헤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들의 음악도 달라졌다. 좀 더 세계화됐고 이란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를 비판하는 음악을 한다"고 히치카스가 말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증 등 모든 불의를 다룬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지금까지 영어 랩은 거부했다. 마디아르는 "그가 영어로 랩을 하면 가식적이고 유치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이란어)가 그의 랩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마디아르와 히치카스는 이란에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면 그들은 테헤란의 옥상에서 춤추며 파티를 즐기다가 잡혀간 젊은이 신세가 될 수 있다. 그 청춘남녀들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서양 노래를 부르고 그에 맞춰 춤을 춘 죄로 고초를 겪었다. 마디아르는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외에서 떠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밤에 잠을 잘 자고 음악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 밤에 경찰이 들이닥쳐 나를 잡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여기선 없다. 이란에선 누릴 수 없는 자유다."

## 소망 칼럼

###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 하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고 했다. 호세아는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간 후에 할 일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호세아서는 '사랑의 책'이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먼저 심판의 경고와 듣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 호세아는 북 왕국에서 출생하여 BC 755년 경부터 북 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3년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다. 동 시대에 활동한 남 왕국 출신의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와는 대조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였다.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믿고 벌써 용서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롬5:8).

여로보암 2세의 통치(BC 793-753) 말기는 북 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끝을 모르고 달려갈 때였다. 당시는 조금 앞서 예언 활동을 한 아모스의 경고대로(암5:2, 7:7-9, 8:1-3)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앗수르의 공격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다(왕하15:9).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북왕국의 지도자와 일반 백성,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 총체적 타락을 일삼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강대국인 애굽과 앗수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함께 부패하였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교훈하시며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다. 낮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치신 후에 싸대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즉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칼 힐티는 "하나님은 어떠한 회개라도 틀림없이 받아들인다. 이 회개가 시기가 늦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회개가 아무리 뒤늦은 누범의 결과일지라도 진실로 우리들의 주 하나님은 힘이나 평안을 희구하며 그에게 매어달리는 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 번 힘을 주어 말한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참으로 예외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신다'라고(시34:18).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신다"고 하였다.

nammicj@hanmail.net

www.rptseast.org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6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 부 처 : 신학교 사무실(퀵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9월 2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9월 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9월 6일(화) - 8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회서신

금메달 신앙(딤후4:6-8)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이번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5회 연속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독식하는 수영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였습니다. 그는 지난 5차례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만 23개를 혼자 따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합하면 2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천년 올림픽의 역사상 펠프스만큼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

다. 2012년 런던올림픽이 끝나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를 당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위기에까지 직면하기도 했던 펠프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리우엔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의 인생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기도 했습

니다. 많은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들이 텅텅 비어도 수영경기에서는 마이클 펠프스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관중들로 입주의 여지없이 모여들었고 수영경기 때마다 수영 황제 펠프스의 대관식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세상에서의 삶을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런 대관식을 거행해주고 싶어 하

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서 사도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금메달 신앙의 소유자인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계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바톤을 놓치고 빈손으로 들어왔다면 실격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톤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고 정절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인생의 결승선까지 끝까지 믿음이란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마라톤경기에서 캄보디아의 리나리(44세) 선수가 여자 마라톤에서 끝까지 들어오면서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1등한 케냐의 젤라가트

선수와는 56분16초나 뒤진 기록을 갖고 133번째 들어왔지만 캄보디아 여자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톤출전이었고 처음으로 완주를 기록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를 몸에 두르고 뛰면서 관중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입성할 때 등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에 성공하면 주님과 천사들에게 박수 받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싸움 중에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분을 앞세우고 그 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조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 위해 끝까지 신앙의 선한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초/장

백신중 목사  
(벤엘교회 담임)



에베소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어떤 중범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법정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행21:28-29). 감옥에서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만도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시(엡1:3-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향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전치사를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원했던 이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

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구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

미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허락하시는 종생의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개역성경)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에서 인종, 문화, 언어, 계급 등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리게 되는 온전한 연합의 축복입니다(엡1:10; 2:13-18).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의 조상으로 부터 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바

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인종적, 사회적, 계층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펼쳐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요 계획인줄 믿기 때문입니다.

회라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마16:19)로 아들과 딸을 다스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두 가지 관점은 4장 이하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윤리적인 코드를 제시하는 부분과 6장에 영적전쟁에 관한 교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안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시라!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의 찬송시와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은 14절에 이르는 바울의 찬송시의 첫 구절입니다. 불란서의 신학자인 리온네(S. Lyonnet)는 이 구절을 “바울의 축원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된 긴 구절은 마치 쉽 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안에서”

신령한 복 안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둘째, 헬라어 원문은 “엔 파세 율로키아 프뉴마티케”인데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원하는 축복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주민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주민들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등 현세적인 복을 구했습

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서 자유나 풍요가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했습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뉴마티케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프뉴마토스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샤프(P. Schaff)와 레이(J.P. Lange)는 “신령한 복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와 은사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후사가 되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상속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3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셋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엔 토이스 에푸라니 오이스)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정

하나님은 축복이시라! 그런데 3절의 헬라어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한 구절에만 율로게오(복)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두 번은 복으로 번역했는데 한번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7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스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국의 미래, 2016년 11월 대선에 달려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시기

미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모독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최악의 시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라...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15-23).

적이라고 유지원(K)부터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만 왜곡시켜’ 집어넣는 법안. 지역에 따라 2014, 2015년부터 실행되기 시작.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7/19/stop-sb-48-n\_1686706.html

△AB 1266(2012, Tom Amiano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 Co-Ed Bathroom Bill)

유치원부터 12학년 남녀학생들이 혼용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동시에 사용하는 것 허락하는 법안. 이 법안을 반대하는 팀에 의해 현재 법정소송이 걸려 있다 오바마 명령으로 풀림.

py-california\_n\_1926855.html

http://wdtprs.com/blog/2013/04/does-a-california-bill-really-classify-pedophilia-as-a-sexual-orientation/

△SB 274(2013, Mark Leno 민주당 상원의원, Legally allowed to have more than three Parents)

아이들의 부모가 엄마, 아빠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동성/양성/무성 등등)으로 될 수 있도록 허용. 자녀양육권에 대한 권리 역시, 한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모에게 허용케 하는 법안.

http://articles.latimes.com/2013/oct/04/local/la-me-brown-bills-parents-20131005

http://asmdc.org/members/a19/news-room/press-releases/new-legislation-to-expand-equal-restroom-access-in-california

△AB 1888(2016 2월 No Exemptions for Religious Institutions, Tony Atkins & Susan Eggman이 제출하고 Mark Leno(민주당) 친동성애 상원의원이 공동제자(co author) 한 법안

학생들과 학교가 주/연방 정부로부터 그래나 스칼라십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biological sex)”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외 모든

###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주류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현실과 사실” 무시하면 미래는 없어

오바마 정부(민주당)가 지난 7년 이 넘게 미국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왔는지 “그들의 열매들”을 보면 “선”인지 “악”인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기준과 원리원칙들을 준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성경말씀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오바마정부(민주당)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

먼저 오바마 정부의 오른팔이자, 또한 많은 자금을 대주고 있는 주들(States)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민주당)에 의해 통과된 법안들중 하이라이트(Highlights)들만 알려드립니다.

△SB 48(2011, Mark Leno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Text LGBT Education)

친동성애 교육인 “동성 결혼관, 동성 가정관, 동성 성관계”를 정상

http://transgenderlawcenter.org/archives/8756

△SB 1172(2013, Jackie Speier 민주당, 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tion)

동성애자이거나 또는 자기의 성별이 혼돈스러워서 카운슬링을 받고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모든 상담(주로 기독교상담)과 치료(Therapy)를 차단시킨 법안. 이 법안은 정상인이 될 수 있던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밀어 넣을 뿐 아니라 “(Sexual Orientation)자신이 생각하는성별”을 주장할 수 있기에 앞으로 어떤 “성별”에게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무서운 문을 열어버린 법안이 되었다.

△따라서 SB 1172에 “소아성애자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이 법안에 따로 넣어 법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강력히 주장했으나 숫자적으로 밀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SB 1172는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 2012년 겨울에 통과되어 2013년부터 유효해졌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9/30/jerry-brown-sb-1172-gay-conversion-thera-

com/2013/oct/04/local/la-me-brown-bills-parents-20131005

△AB 1951(2014, Jimmy Gomez 민주당, LGBT & birth certificate)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임양할 때, 자신을 엄마로 할지, 아빠로 할지, 그냥 “부모”라고 할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부모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임양해온 아이들의 “성별”까지도 동성애 부모들 맘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에 아이들에게는 여러모로 해로운 법안이다.

https://www.iflg.net/new-california-birth-certificate-law-allows-lgbt-parents-to-identify-as-mother-father-parent/

http://www.charismanews.com/us/45114-same-sex-parents-may-land-on-california-birth-certificates

△AB 1732(2016, Phil Ting 민주당의원, All Gender Bathroom Bill)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공장소 화장실을 남녀혼용 화장실로 만드는 법안이 올라와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전체에 의해 14:0으로 통과,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령으로 계속 진행중.

수십 가지(31개 이상)의 성별들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http://www.christianitydaily.com/articles/7732/20160303/newly-introduced-bill-pushes-non-discrimination-cal-grant-receiving-schools.htm

△SB1146(2016 5월,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Ricardo Lara와 Mark Leno(민주당)가 또 공동 제정한 법안.

SB 1146 법안은 그동안 공립학교에서도 미국헌법상 주어진 “Title IX exemptions(종교적 면제)”을 더 이상 대학교나 크리스천 학교들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친동성애/친성전환 교육을 “의무화” 하고 “강요” 하는 법안이며 236년 넘게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던 자유를 빼앗는 법안이었으나, 지난 8월 중순 기독교학교와 법률들의 소송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자체가 사약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주목해야 함.

http://www.foxnews.com/opinion/2016/08/10/california-bill-sb-1146-threatens-minorities-and-poor.html

http://www.opposesb1146.com/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로마시대의 팩스 로마나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황제 숭배는 언제 시작되었는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권 권사

A: 로마제국의 첫 번째 황제는 시저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자기 가장 믿었던 부하 부투르스에게 암살당하고,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울 때 로마제국 전체가 둘로 갈라져 20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제압하고 20년간 반란의 남은 도당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금의환향을 했습니다. 그때 외친 것이 바로 Pax Romana(강력한 로마)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 로마는 200년간 ‘팩스 로마나’로 불리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로는 시원하게 잘 포장되었고, 누구나 그 도로 위를 산적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바닷길 역시 약전 후 외에는 항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지중해는 해적이 활보하는 곳이었지만, 팩스 로마나 시대에는 상업이 번성해 육로와 해로를 가릴 것 없이 늘 장사꾼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통일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 옥타비아누스부터 신으로 호칭...도미티안이 가장 심해

언어가 통일되고 화폐가 통일되고 경제단위가 통일되었습니다. 로마는 공권력의 무리한 사용 없이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원로원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공을 높이 사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 때부터 로마 황제숭배의 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입니다. 황제는 죽은 후에도 로마제국을 지키는 수호신들의 목록에 추가되었고, 시민들은 신전에서 죽은 황제의 이름으로 향불을 피우며 제국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를 로마 당국자들은 시민의 통일성과 충성심을 굳게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황제의 상 앞에서 향불을 피우는 것은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반역’ 내지는 최소한 ‘불충’과 ‘애국심 부족’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10명 가운데 황제 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로마의 디도장군의 동생입니다. 도미티안은 티투스 황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자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그는 반 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주 우리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황제숭배에 제일 반대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기에 그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였습니다.

네로 치하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시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의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은 토클로 산으로 박해를 피해 숨었습니다.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은 잡혀 밧모 섬에 유배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씌어진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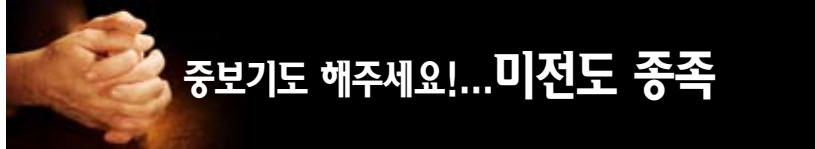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멕시코의 후이츨(Huichol)



후이츨족은 멕시코-인디언 종족으로 후이츨레 테비(Tevi)나 위자리카(Wizarik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주로 서부 멕시코의 서 시에라라드레 산맥에서 주로 산다. 이 지역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험한 지형 가운데 속한다. 높이 솟은 대지와 절벽, 강 계곡이 이 지역의 특색을 이루며 관목림과 가시나무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후이츨족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지역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그들은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돼 1720년대까지 스페인 식민주의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에 게 정복된 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후이츨족은 "메스티조(mestizo)"라는 스페인-인디언 혼혈민족과 압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후이츨족의 영토를 차지하려 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후이츨족은 더 이상 고립되지 있지 않고 멕시코 사회와 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후이츨인들은 자급하기 위해 식량을 재배하는데 옥수수, 콩, 스카쉬(호박의 일종), 칠리(고추의 일종)가 흔히 재배하는 작물이다. 이런 것들은 동물이 끄는 나무쟁기와 호미 같은 도구로 경작한다. 또 대부분 가정에는 소, 당나귀, 말, 돼지, 칠면조 등의 가축을 키운다.

후이츨 남자들은 전통의상의 하나로서 밝은 색으로 수를 놓은 면이나 무명 셔츠를 입는다. 가족들을 신고 끈으로 짠 야자 모자를 쓴다. 여자들은 색깔 있는 스카트와 블라우스를 입으며 밝은 색깔의 목걸이를 멋을 낸다.

결혼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정혼을 함으로써 한다. 후이츨인들은 대개 14세와 17세 사이의 나이에 결혼을 한다. 후이츨의 대가족은 "란초(rancho)"라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이러한 자그마한 공동체는 핵가족으로, 개개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거주지에는 공동 부엌과 "시리키(xiriki)"라고 하는 가족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 란초의 조상들이 모셔져 있다. 그러한 건물들은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돌이나 흙벽돌로 지어서 초가지를 엮는다.

인근의 란초 지역들을 함께 묶어 사원지역(temples district)으로 부르며 사원지역들은 또 보다 큰 공동체지역(community district)에 속한다. 이러한 공동체지역은 무당이나 주술사이기도 한 장로인 "카위테로(kawiteros)"들의 장로회가 통치한다.

신앙 그들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후이츨인들 대

다수는 애니미즘 신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불, 태양, 비와 같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 영혼과 신령들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후이츨인들은 주술사나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무당들은 추측컨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축제의식을 거행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꿈을 통해 지시를 받는다. 무당들은 때로는 3일이나 계속되기도 하는 기도를 통해 신령과 직접 교접한다. 또한 그들은 마술이나 마법을 쓰기도 한다.

후이츨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하세계에서 5년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 여행이 끝나면 영혼은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암반수정의 형태로 무당에게 잡히게 된다. 그 수

정은 시리키(가족 사당)에 놓여져서 피와 제물로 신성시되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후이츨인들은 억압당하는 민족으로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들은 정령과 다신 숭배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부심이 강한데다 너무나도 독립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후이츨인들에게 전하는데 있어 전례 없는 기회가 있다. 신약성경과 영화 "예수"는 그들에게 이용할 수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자국에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이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역할 사역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동성애광고 반발, 그레이엄 목사 주거래 은행계좌 폐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동성애 광고에 반발해 은행 계좌를 바꿔 버렸다. 지난 26일 기독교 커뮤니티 '갯북'에 따르면 LA중앙일보의 동성애 광고에 반발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주거래은행 계좌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1억 달러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와 사마리탄 퍼스(Samaritan's purse)재단 등을 운영하며 웰스파고 은행과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웰스파고 은행이 레즈비언 커플이 여자 아이를 입양하는 광고를 내보내자 예치돼 있던 돈을 모두 빼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

이들 계기로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기업과 보수 기독교계의 태도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 광고는 동성 커플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들의 자녀 입양을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철저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뜻에서 웰스파고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기독교 재단이 거래 중지를 선언했지만 은행 측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웰스파고 은행은 성명을 발표, "우리는 커뮤니티의 다양성과 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며 "이번 광고는 기업의 회사의 철학을 커뮤니티와 나누고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국 내에서는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기업에 대한 기독교계의 보이콧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친동성애 단체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6만 여명이 불매 운동을 벌였다. 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아마존, 나이키, 이베이, 페이스북, 홈디포 등의 기업에 대한 기독교인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불매 운동에 대한 반응은 교계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린다. 남침례교 종교윤리자위원회 러셀 무어 목사는 "기독교인이 불매 운동을 통해 동성결혼 반대를 주장한다고 해도 사회가 기독교의 신령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굴복 시키려는 행위는 결혼의 정의를 성경이 아닌 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했다.

"동성애자 권리처럼 근친상간도 인정해 달라"

미국 뉴멕시코 모니카에 살고 있는 모니카 마레스(36·Monica Mares)와 칼럼 피터슨(19·Caleb Peterson)은 모자지간으로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의 권리처럼 우리의 성관계 역시 정당하며 이를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것이다.



지난 11일 크리스토포스트에 따르면, 모니카가 16살에 아들을 입양 보낸 후 최근 아들을 다시 만났으며, 근친상간의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우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5천 달러를 내게 된다. 친아들인 피터슨은 "성인 동성애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성관계가 맺는 것을 허용한다면 나와 어머니의 성관계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슨은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모두 법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인이며, 동성애자들처럼, 18세만 넘긴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나는 19살 성인이며, 어머니 역시 성인이다.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번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클로비스뉴스저널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월 25일 마리아와 피터슨이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형사 고서장은 '피터슨은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모니카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총 9명의 자녀를 둔 마레스는 처음에는 그의 아들과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그들이 사실 연인이며, 누구도 둘 사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레스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는 그를 알고 싶지 않다"면서 "나의 아이들 뿐 아니라 전 가족이 그를 사랑한다. 법원이나 감옥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 나오면 클로비스 주를 떠나 우리 관계를 허용해주는 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50개 주 모두 근친상간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집트 사망자 267명...부상자 400명 넘어

24일 새벽 규모 6.2의 지진이 강타한 이집트에서 중부 지역에서 사흘째 필사적인 수색·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26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207명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라치오 주의 아마트리체에서 나왔고, 49명은 마을 전체가 쓸데없이 된 페스카라 델 트론토가 있는 마르케주 아르파라 지역, 나머지 11명은 아마트리체 인근 아쿠몰리에서 희생됐다.



지진으로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숫자도 400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잔해에서 생존한 채 구조된 이들은 2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발생 지역이 여름 휴가지로 인기 있는 산악 지대라 외국인 관광객의 희생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자국민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영국 언론도 14세의 소년 등 자국민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또, 스페인과 캐나다 엘살바도르 국적자 1명씩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여진이 일 세 없이 이어지며 구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현지 주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본진으로 큰 피해를 본 아쿠몰리 근처에서 규모 4.8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지표와 가까운 지하 11km에서 발생한 것을 비롯해 사흘 전 본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 약 900차례가 이어졌다.

여진으로 아마트리체에서는 손상된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진입로 부분에 소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나 수색 작업이 종종 중단되고, 수색·구조 작업에 쓰여야 할 중장비가 진입로 확보 작업에 분산되는 등 구조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의 강력한 여진의 여파로 지진 피해가 극심한 아마트리체 구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하는 아마트리체 호수 주변의 교량이 붕괴돼 구조대가 우회로를 내는 긴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현지 주민들 가운데 잠을 자다 여진에 놀라 임시 숙소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도 다수 목격되는 등 지진 강타 지역에는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2천100명의 주민이 지진 피해 지역에 임시로 마련된 가설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지진 강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우선 5천만 유로(약 629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27일을 국가 애도일로 선포하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첫 장례식을 진행한다. 장례식에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외톨이 심장병 소년 축구선수 호날두가 되기까지

'갯인성'이라고 불리며 인성 좋기로 소문난 크리스천 축구선수 호날두의 성공 실화가 공개되며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채널 'Beauty 이야기'가 게재한 '외톨이 심장병 소년 축구선수 호날두가 되기까지'란 제목의 영상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다.

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가난이 너무나 싫었지만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 가난은 나를 잡아먹었다.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나는 너무 두려웠다. 형은 마약중독자였다. 형은 약에 취해 삶에 의욕도 없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청소년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였다. 청소년 일을 하는 어머니가 난 너무 부끄러웠다.

어느 날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흉탄을 치던 나에게 보인 것은 저 멀리서 축구를 하는 동네 친구들이었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축구에 끼여주는 않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우연히 날아온 축구공을 찼을 때 난 처음으로 희열이란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도 축구가 하고 싶어요. 축구팀에 보내주세요." 절없는 아들의 부탁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비싼 축구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나와 함께 이곳저곳 팀을 알아봐 주었다. 겨우 저렴한 가격에 팀에 들어 올 수 있었던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받지 못하고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는 혼자 남아 축구공을 닦아야 했다.

넓은 축구화를 수선하며 축구를 하던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난 어릴 적부터 정상인보다 두 배는 빠르게 심장이 뛰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운동선수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다행히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집은 가난하였다. 값비싼 수술비를 지불할 수 없었다. 나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형은 나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하였고 마침내 일 년 후 온 가족이 모은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재활을 마친 후 나는 더욱 더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비록 동료들에게 패스를 받지 못하면 어떤가. 나는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난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에 데뷔하였다. 수많은 관중, 서포터즈, 스포츠 기자들 그리고 유명 축구팀 스카우터들, 내가 바라고 바랐던 축구장.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그렇게 나의 데뷔전이 끝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자신은 다른 리그 축구팀 감독이라고 한다. 그는 나를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전율이였다.

그곳은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최고의 축구 감독이라 평가받는 퍼거슨 감독이었다.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흐느끼며 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청소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수화기를 잡고 울고 있었어요. 구멍난 심장병이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었다. 나는 그렇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되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호날두 선수 유튜브 보면 매일 스포츠카 타고 다녀서 그냥 어릴 때부터 가난하지 않고 평범하게 산 순수 잘 알았는데 지금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다" "호날두는 역시 남다른 인물이었다"란 반응을 보이며 찬사를 보냈다.

동아프리카 처음으로 기독교사대회 열려

한국의 기독교사운동에서 영향 받은 동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자체 기독교사대회를 갖고 신앙으로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다.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은 8월 22일부터 4박5일간 케냐 카바라코 대학교에서 '동아프리카 기독교사대회(EACTO)'가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EACTC는 정병오 전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2013년 국제기독교학생운동(SAM) 아프리카가 주관한 콘퍼런스에 강사로 초대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정 전 대표는 콘퍼런스에서 인연을 맺은 케냐 청소년선교단체 대표들을 이듬해 좋은교사운동이 개최한 제9회 기독교사대회에 초청했다. 교사가 아닌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를 초청한 건 이들이 케냐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한 교사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20여년간 4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좋은교사운동의 활동에 도전 받은 이들은 한국처럼 케냐 기독교사들의 모임을 만들고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의 노력은 이번 EACTO로 결실을 맺었다. 집회에는 케냐, 우간다, 남수단,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에서 온 기독교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EACTO 조직에서 영감을 마친 정 전 대표는 강사로 초대돼 23일 저녁 집회에서 '한국 기독교사운동의 역사와 기도의 힘'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 전 대표는 "EACTC는 케냐의 교육과 기독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역사적 현장"이라며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동아프리카 공교육 기관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사들의 활동을 도와 아프리카 전역에 기독교사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달 초중반만 하더라도 클린턴이 10%포인트 안팎으로 여유 있게 앞섰지만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트럼프, 힐러리 7%p차로 추격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달 초중반만 하더라도 클린턴이 10%포인트 안팎으로 여유 있게 앞섰지만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30일 미 CBS뉴스에 따르면 피 모머스대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은 4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39%)에 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클린턴이 여전히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달 초 같은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13%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게 줄었다. 당시 조사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50%, 37%의 지지율을 얻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클린턴 지지가 후퇴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원의 85%는 클린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조사(92%) 때와 비교하면 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공화당원 가운데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78%)은 몇 주 전 조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51%는 클린턴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비호감도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25-28일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689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3.7%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가 전날 발표한 조사(24-26일, 유권자 2천7명) 결과에서도 클린턴(43%)과 트럼프(40%)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한 주 전 클린턴이 44%로 38%에 그친 트럼프를 6%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클린턴의 가족재단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클린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으로 분석된다.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이 최근 추가로 공개되면서 클린턴재단이 미 정부에 대한 외국인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편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후보의 납세명세와 관련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모머스대의 조사에서 납세명세를 공개하는 게 대선후보에게 '중요하다'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분의 1가량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명 가운데 6명꼴로 후보의 납세명세 공개가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여론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 9. 김영식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초기 교인 명단에 따르면 김영식은 1871년 경에 강화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96년에 미국 북장로교 대한선교사였던 33세의 제임스 S. 게일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서울 연동교회에 등록된 25세의 장로교인으로 보면 된다.

고 있었다. 그가 1905년 에와로 이 명 했는데 이는 그의 목회적 사역을 목적인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적어

김영식은 1906년까지 1년간 에와교회를 섬겼다. 그의 가장 큰 명에는 신축 예배당에서의 대형 교회 목회였을 것이다. 1905년 5월 1일자 하와이에서 간행된 한 신문은 에와한인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 해 4월에 건축한 본 예배당은 호놀룰루를 제외한 하와이에서 세워진 최초의 한인 예배당이었다. 미국 북감리교 내한 선교사였던 아더 노블 목사가 그 해 9월에 하와이를 방문하였는데 하와이 내의 가장 큰 교회이자 신축 예배당을 구비한 에와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제임스 S. 게일 선교사

하고 전일명이 회장이 되어 항일 운동, 일화배척 및 동족 상해를 목적이었고, 이듬 해 5월에 속쇄관 친목회보를 발행하였다. 김영식이 에바 친목회의 발기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본 친목회의 중요인물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906년 9월 에와교회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생신을 맞이하여 생신 축하 행사를 치렀다. 이듬 해 7월에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송의 책임을 물어 그의 아들 순종에게 왕위를 양위시켰는데 황제로서는 마지막 생신축하가 된다.

#### 오아후 섬 카후쿠와 와이아루아

김영식은 1907년에는 오아후 섬의 카후쿠와 와이아루아에 파송되었다. 그는 1908년에는 와이아루아교회만 섬겼고, 카후쿠에는 김영식을 대신한 임시 교역자가 공급됐다. 1908년 하와이 연회록에 따르면 와이아루아교회는 그가 섬겼던 에와교회와 비교할 때 무척 애소했다. 1908년 현재 와이아

루아 20명의 교회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1909년에는 김영식이 와이아루아와 카후쿠 뿐만 아니라 라이에까지 선교의 폭을 넓혔다. 1909년의 와이아루아교회의 경우 17명의 세례교인과 30명의 학습교인, 4명의 유아세례교인이 있었고, 2개의 주일학교에 5명의 직원이 31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유중K가 1909년 와이아루아의 권사로서 김영식의 목회를 보조했다. 당시 본 교회는 600불 상당의 예배당을 소유한 자립교회였다.

1910년에는 김영식이 카우아이 섬의 두 지역의 목회자로 임명되었다. 이곳의 케아리아, 카피아, 킬라우에아 지역과 더불어 루후에와 하나마우루 지역이 그의 목양지였다. 이들 목양지의 몇 교회는 19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4년 교인 통계에 따르면 케아리아교회는 16명, 카피아교회는 33명, 루후에교회는 12명, 그리고 하나마우루교회는 17명의 등록 교인이 있었다.

#### 하와이

김영식은 1911년에는 하와이 섬의 호노카아와 쿠쿠이아헤에 지역을 맡았다. 그는 1912년까지 2년간 이곳에서 목회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 감독 존 W. 와드만 목사는 1912년에 김영식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에서 떠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영식이 1912년 이후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2년 후인 1914년에 김영식은 서울 마포의 삼개교회로 파송 받는다. 삼개교회는 삼밭이 있는 포구 또는 세 개의 포구라는 의미인데 오늘날의 마포다. 삼개는 서강에 이어 조선시대 수상 교통망이었다. 이곳에 삼개교회가 있었던 것인데 김영식은 이곳 교회를 목회했다.

## 에와교회 큰 부흥...와이아루아교회 연 재정 27불 중 10불을 선교비로 1904년 하와이 도착 8년간 선교사역 후 1912년 서울 삼개교회로 부임

#### 카우아이 섬

김영식은 하와이 이민선에 몸을 싣는다. 인천을 떠난 그가 1904년 1월 9일 '아메리카 마루'에서 내려 호놀룰루를 밟았다. 당시 그는 기혼자였으나 부인을 사별한 33세의 홀아비였다.



김영식(?)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선박을 이용해서 호놀룰루에 내린 동명자인 김영식이 있었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난 25세의 기혼자였다.

김영식은 하와이에 오면서 감리교인으로 변신하여 1904년 카우아이 섬의 카피아교회를 목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1904년 말 현재 본 교회는 33명의 등록교인을 확보하

고 있었다. 그가 12월에 이명 해야 했다. 카피아교회에서의 그의 목회기간은 2년으로 추정된다.

#### 오아후 섬 에와교회

위에서 언급한 대로 1905년 12월에 개최한 제1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는 김영식을 오아후 섬의 에와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했다. 1905년 현재 에와교회는 135명의 등록교인에 출석은 200명에 이르렀는데 하와이 한인교회 중 으뜸이었다. 1904년경의 에와교회 교인수 56명과 비교할 때 거의 250%의 성장을 이루었고, 출석수를 비교하면 400%에 육박하는 성장을 달성했다. 많은 수의 한인노동자의 유입에 기인했을 것이다. 1905년 현재 하와이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의 주일 평균 출석수는 605명이었는데 에와교회의 출석수는 전체 출석수의 1/3에 해당한다.

수 없었을 것이다. 1906년 7월에 하와이를 내방한 조지 H. 존스 선교사도 본 교회를 방문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김영식을 만나야 했다.



에와 교회

1905년 5월 3일에 오아후 섬의 에와 농장에서 에와 친목회가 조직되었다. 정원명, 김성권, 윤병구, 이만준, 김규석, 강영소 등이 발기

인하고, 학습교인은 24명이었으며, 유아세례교인은 2명이었으며, 6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3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해 와이아루아교회 교인 이 한 해 동안 드린 헌금액수가 27불이었는데 이중 흑인보조회로 2불, 미국 성서공회로 2불, 부인회의 선교부로 2불 그리고 부인 내지선교회로 4불이 지정되어 김영식의 다양한 선교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를 대신하여 임시 목회자를 파송한 1908년의 카후쿠교회는 6명의 세례 교인에 1명의 학습교인이 있었고 2명의 교사

로 파송 받는다. 삼개교회는 삼밭이 있는 포구 또는 세 개의 포구라는 의미인데 오늘날의 마포다. 삼개는 서강에 이어 조선시대 수상 교통망이었다. 이곳에 삼개교회가 있었던 것인데 김영식은 이곳 교회를 목회했다.



카후쿠 교회, 1909년

기한 부흥회는 인재양성과 일화배척을 걸고 서성년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삼개교회가 오늘날의 마포중앙교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덕기 목사가 삼동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인 1912년 9월 11일 경성부 룡산면 사촌리(새पुर) 양미리암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삼동교회의 다섯 번째 지교회라 된 사촌리교회가 바로 마포중앙교회다.

8년간 하와이 선교를 담당했고 삼개교회로 부임했던 김영식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damien.sohn@gmail.com

### 푸 / 른 / 초 / 장

(4면에서 계속)

"찬송하리로다(울로게토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복록기아)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울로게토스)" 첫 단어인 울로게토스 역시 복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의 첫 세 단어인 "울로게토스 호 때오스"는 "하나님은 복이 되시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이 성경을 보면 "Blessed be the God"(ESV, KJV, NASB 등)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긴 찬송시의 첫 구절을 장엄한 선언으로 열고 있습니다. 에

베소에서 야데미 여신을 섬기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축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도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삼상 23:1-14). 그일라의 견고한 성과 성문을 의지하여 숨기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숨기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삼상23:1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이 되여주시 것입니다. 아멘. danbaeq@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델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ptical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성경공부회: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양예배: 오후 2:00 유년부: 오전 6:00(월-토)</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살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seattle.org</p>	<p><b>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bc.org</p>	<p><b>앵커리지베를린교회</b></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2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b>엘파소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rc.com</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성경도 신앙 (14)

## 청교도들의 예배 (3)

2. 신령과 진정의 예배 [1595호 8 면에서 계속]

2) 신령(영)으로 예배함이다

신령(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특정한 장소나 신성한 건물에 관한 것을 말함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셨다. 곧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영'으로 집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영으로 예배함에 대해 테리 존슨(Terry L. Johnson)은 "개혁주의 예배, Reformed Worship"란 책에서 네 가지를 말한다.

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더 누리는 신성한 건물이나 신성한 장소나 신성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고, 거룩한 땅이 존재했으며, 거룩한 성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철폐하셨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구약의 예전의식을 되살려 재현하려고 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제사 의식을 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로 설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칼빈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 구약의 선조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형식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해석했다. 곧 구약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예표적인 것들에 의해 그림자로 비취긴 것을 가진 반면,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성 안에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이었던 특성과 달리 신약의 영적 예배를 강조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형상들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뜻한다.

구약에서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씀하며, 표면적 할례를 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같다(골2:13, 신10:16, 30:6). 다만 예배 형식의 측면에서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상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영적 예배를 강조할 뿐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예배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면하려면

### 예배에는 경외와 기쁨의 요소가 함께 있으며 단순 보편적 모든 예배 의식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어야

영으로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 단순한 예배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의미한다. 신약의 예배는 이전 행사와 같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약의 제사와 같지 않다. 신약 시대에는 물리적인 예루살렘과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약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창조적인 자유의 측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예배의 단순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의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유함이다. 그러므로 영의 규칙들이나 사람이 제정한 규칙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며, 만일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성도의 자유가 침범 당하게 된다. 성도가 순종해야 할 규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예배의 단순성을 위한 지침과 근거로 충분하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성경 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들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가 제사장적 제의양식을 도입하거나 현대 교회의 예배축제 감독기법을 도입하여 휘황찬란한 공연방식을 도입하거나, 예술가나 배우들을 고용하여 다양한 드라마와 형상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수용하는 것을 피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하며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19-22절이 바로 이 원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율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끗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약 시대 성도들은 한결같이 보다 더 단순한 회당의 예배의식을 따라 성경을 읽고 설교하며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간단

한 방식을 채택했다.

다) 경외심으로 예배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히12:28). 그러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늘에 계신 크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지하고 엄숙하며 경외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예배를 무겁게 드리자는 것은 아니다. 예배에는 경외의 요소와 기쁨의 요소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경외심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배자인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건재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구처럼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는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라고 하지만 사실 공연한 자신들을 향한 격려의 박수나 칭찬의 소리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히려 시편은 성도들이 예

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치아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릴찌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자로들은 앞드려 경배하더라"(계5:11-14).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공포심이 아니고, 무덤덤한 감정도 아니고, 마음에 깊은 감격을 안고 이루어지며 매우 조심하는 자세를 말한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성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자세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태도인가?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요 기쁨이 표현이라면 당신은 이런 예배자로 서 있는가?

라) 지혜롭게 마친다

예배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각 예배 항목의 시간, 장소 구조 등에 대해 그 세부 사항들은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실천적 수준에서 모두 납득할 만해야 한다. 이것을 누가 정하는냐는 문제는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의 규례에는 예배 모범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1장 6항에, "그 상황하에 언제나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적 규범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0부 29항에 "주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원칙들로 되돌아가야 한다. 항상 지켜야 할 주된 원리는 모든 것들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고전11:13, 14, 14:26, 40).

성결한 것들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의식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도의 분별력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배함이 신령으로 예배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영혼의 상처

살다보면 가끔 별다른 원인이 없는데 슬프고 외롭고 불안할 때가 있다. 삶에 대한 우수가 물밀 듯이 밀려와 가슴이 저려올 때가 있다. 영혼의 상처 때문이다. 그런 나를 대할 때마다 남편은 "당신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그래 갖고 어디 목욕 하겠어?" 하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준다. 그래서 한번은 "당신이 사모의 고충을 알아?" 하며 대든 적이 있다. 그 한 마디 말대답에 스스로 얼마나 치유가 되었는지... 속사람이 다시 원함을 느꼈다.

몸이 아픈 것은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잊혀질 수도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어무만져 주어야 하고 삶의 고비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시어, 널 사랑한다니까...' 계속 자신을 달래며 기다려주며 같이 아파해 주며 가슴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영혼의 조그금씩 갈라갈 때 치유되리라.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밤 내 상처를 알아주고 싸매주고 할 수 있겠나. 조석으로 변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인데... 그래서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자기 스트레스도 자기가 풀어 버리는 인격이 진짜는 큰 사람이요 깊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찌르고 때리고 하던 그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 그러나 주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도 폭발시키신 적이 없으셨다.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정말 무의미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줄 알고, 큰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치유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길을 가다가 흉탄들이 발이 빠진 어린 아이는 그냥 넘어진 채 일어날 줄 모르고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운다. 일어나 발을 쏙 빼면 될 텐데 계속 앉아서 우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어른인데도 계속 환경 탓, 건강 탓, 가난 탓, 남편 탓, 자식 탓.만 하고 발을 뺄 줄 모르고 앉아 울고 있으니, 그런 삶은 심중팔구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보려고 원망하는데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살게 되리라.

정신병자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차피 한 치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한 치의 앞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그래서 내가 안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그냥 놓아버리고 내내 가슴이라도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놓아버려도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상이 다 막혀도 내가 울려다 볼 수 있는 하늘은 그야말로 하늘만큼 뻗 뚫려 있는데,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 붙잡고 있어도 꼭 차 있던 영혼의 상처들이 하나씩 열 길로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다. 금해서 힘들어서 절박해서...라며 구구 절절이 구실을 대면서 알팍한 일상을 향해 달려가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우직한 몸부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을 내실 때까지 바닥에 엎드린 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래서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고, 돈 없는 것을 속상하고, 외롭다는 하소연에 기운을 빼거나 내 몸만 챙기고 사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가슴이 동시에 열려 공감의 절정을 이루어 내 영혼의 상처는 어느새 잠적해 버리는 광명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changsam01020@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공부: 화, 토 오전 10:00</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비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양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전 영 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3 부 예 배: 오후 1:30 주 일 4 부 예 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6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3>뉴욕순복음인도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7:3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3 부 예 배: 오전 11:00 주 일 4 부 예 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신)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Fax: (347)502-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getsemane.org</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1:00 영 양 예 배: 오후 1:30 최 후 성 경 공 부: 오전 10:00 수 요 성 경 공 부: 오후 8:30 금 요 성 경 공 부: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10 새벽 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 요 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50 찬 양 예 배: 오전 10:50 영 양 성 경 공 부: 오후 1:30 주 일 4 부 예 배: 오후 12:30 주 일 5 부 예 배: 오후 1:30 수 요 찬 양 예 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3>에벤에셀선교회</h3> <p>담임목사: 최창섭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10:45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00 주 일 3 부 예 배: 오후 1:15 주 일 4 부 예 배: 오후 3:00 새벽 기도: 오전 6:00(화-토)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p>	<h3>예사랑교회</h3> <p>담임목사: 손환근 주 일 예 배: 오전 9:0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3>퀸즈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8:3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0:30 주 일 3 부 예 배: 오후 12:15 주 일 4 부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9:00 주 일 2 부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1:30 NCF영양: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은...</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교회를 위한 섬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 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신앙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운 그분의 몸(엡4:12)이요, 교회의 머리(엡5:23)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명도 채 안 모이는 작은 개척 교회요, 아무리 녹슨 종탑과 초라한 간판을 내건 지하실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되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해서, 혹은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해서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을 모르니, 종종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 어느새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교회가 필요없다는 무교회주의자들과 교회까지 않고 집에서 잠옷차림으로 편하게 누워서 꾸미에 맞는 목사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회(Cyber Church) 주의자들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헐담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식들이 앉아 있는 방상 앞에서 교회를 헐뜯는 자들입니다. 생각에는 그것이 의라고 여기고, 교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들추어내며 교회를 소란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헐뜯고 비판하므로써 스스로

교계의 스타가 된 자들입니다. '개혁과 갱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교회의 영광을 허물어뜨린 덕분에 참신한 스타가 되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기에 비판받으며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고쳐야 할 것도 많고 갱신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교회를 인간의 단체나 한 기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신학적 동기와 신앙의 동기에서 해야 하고,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안도 없는 비판을 한단 말입니까?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런 교회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롬

14:19, 15:2, 고전14:4, 12, 골4:6, 막9:50)임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갈2:20)고 고백했습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먼저 내가 완전히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을 알 때,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교회를 맡았이, 아니 앞뒤로 눈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GBC복음방송 사옥이전예배 및 출판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애너하임-LA 이원방송, 디지털 생방송 시작  
GBC 사옥이전 및 임종희 목사 출판감사예배

GBC 미주복음방송 사옥이전 및 임종희 목사 출판감사예배가 8월 23일 오전 10시30분 GBC 미주복음 방송 1층 대예배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25년 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방송사역을 감당해오다가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진유철 목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신사옥 이전 감사예배'는 김영일 목사(5대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했다. 설교를 맡은 김영일 목사(이사)는 '영광의 감사를 하라'(시107: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OC교협 회장)와 한기

형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회장)가 축사했으며 임종희 목사(GBC 설립자)는 격려사를 통해 "미주복음 방송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달라"고 부탁했다. 2부에는 임종희 목사의 저서 "365일 매일 매일 영혼구원" 출판 감사 및 축하행사가 열렸다. 한해진 전도사의 사회로, 고승희 목사(이사)의 축사와 찬양사역자인 비키 리자매의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신사옥으로 이전한 미주복음방송은 애너하임과 LA에서 계속해서 이원방송을 하고 있다. 900MH의 안테나를 애너하임 사옥에 설치해 타워로 직접 송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송출타워의 트랜스미터 2기를 교체함으로써 방송의 질이 더욱 높아졌다고 GBC측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장비 교체하고 디지털 생방송을 시작해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김세운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로마서' 주제로 칭의론 강의  
APU한인동문회 여름신학강좌, 강사 김세운 박사

아주사피서피대학과 한인총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여름신학강좌가 로마서를 주제로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 강사로 강의했다. 김세운 박사는 "칭의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곧 하나님나라)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바울의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복음이며 종교개혁을 완성할 복음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변혁시키는 힘을 가진 복음"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5면에서 계속)

이제는 더 이상 직책만 화려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되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주류 언론과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매우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고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고집스런 "고정관념"에 매여 진짜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고 눈감아버린다면 우리 자

녀들의 미래와 미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알고 그 정보에 기준하여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편에 꼭 설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다음호에는 미연방정부(Federal) 차원에서 미국전역에 퍼뜨려지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는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시키느니라"(고후10:4-5).

sarahspring2009@gmail.com

살롱장로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예배  
내년 40주년 준비...40년사 발간, 단독선교사 파송 등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나성균 목사는 "별써 39주년이었다"며 "이제는 정말 어른다운 40주년을 한 해 앞둔 씩씩한 최정정기 인생을 사는 사람의 나이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련을 만나 연단을 받으며 성장했어도 어느덧 시련을 극복하고 참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에 교인들은 공감하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 설교에서 나 목사는 에베소서 1장 15-19절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위해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기도를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위한 최선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숨겨있는 위대한 역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장대하시고 위대하시면서도 우리의 세밀한 지도자 목까지도 자세히 들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주시는 유업 곧 상속으로 주신 천국의 소망

과 영광과 그것을 실천하시는 능력을 더욱 깨닫자"고 역설했다. 한편 살롱장로교회는 2017년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저녁 준비위원들은 모임을 갖고 다음 10개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1)살롱장로교회 40년사 발간 2)단독 선교사 파송 준비 3)중남미 단기 선교 4)성지순례 5)특별 음악 예배 6)장립 때부터 함께 교회를 섬기던 교역자 및 교우들 홈커밍 행사 7)어린이 연합행사 8)행사준비를 위한 바자회 개최 9)에어로빅 강좌 개설(가임비 전액 선교지원) 10)창의 미술을 통한 카드 제작을 통한 선교지원.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선교지에 투자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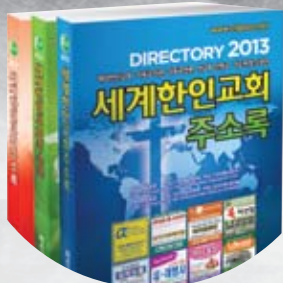
△지역: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  
△사업내용: 무제한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 타이어/플라스틱을 원자재로 사용해 오일 및 카본

과 철 등을 재생산해 판매하는 회사.  
△회사설립 목적: 도미니카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막대한 선교비용을 자체조달하기 위해 설

립했으며, 장래 유망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현지 미주은행에서 무상으로 자금지원을 받기도 한, 도미니카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임.  
▲문의: 최해진 선교사(1-800-299-5942)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동부교계 게시판



## 2016 뉴욕청소년할렐루야대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뉴욕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2016 뉴욕청소년할렐루야대회 "ILLUMINATE"라는 주제로 9월 9일(금)과 10일(토)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개최된다. 6시30분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며 7시부터 본 대회가 열린다. 강사는 샘 원(Pursuit NYC).

▲문의: (718)279-1414, jhyun@youthhallelujah.org

##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동산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장로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시민권)자로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며 이민목회와 2세교육에 비전이 있으며 한영설교 가능. 서류는 신학교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본인 및 가족(사모)소개서, 목회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2회분, 기타 보조자료. 접수마감은 9월 30일.

▲문의: dongsanchurch@yahoo.com

##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과 특별공개강좌

미동부 생명의전화가 주최하는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과 제12차 특별공개강좌가 9월 10일(토) 오후 7시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다. 기념식과 세미나가 있으며 이문화 박사(뉴욕시립대 행동신경과학 교수)의 강의와 치유 체험자인 심대소녀 L양과 한인청년 김이 발표한다. 참석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문의: (718)213-8645

## '홈커밍 평화 콘서트'

뉴욕한인교회(담임 이홍보 목사)가 주최하는 '홈커밍 평화 콘서트'가 9월 11일(주) 오후 4시30분 동 교회(건축 중)가 사용하고 있는 브로드웨이장로교회(601 W. 114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911 테러 15주기와 교회의 향후 100년의 사명을 실천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바리톤 김성길 서울음대 명예교수와 이규도 이화여대 음대 교수, 바리톤 최원휘 등 1960-70년대 유학시절 동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출연한다.

▲문의: (212)662-1422



전도대학교 학생 허윤준 목사가 뉴욕장로연합회 노방전도에 앞서 기도인도 하고 있다.

## 뉴욕장로연합회 노방전도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손성대 장로)는 오는 8월 28일 다민족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지난 25일 오전 10시 노던 블러바드 204가 맥도널드에서 모여 노방전도를 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와 한글로 된 다민족 전도지를 준비해 10명이 5개 팀으로 나눠 후려신의 유니온

과 루즈벨트, 메인스트릿과 루즈벨트가 만나는 곳에서 전도했다. 전도지는 뉴욕장로연합회에서 준비한 1000장과 200여장의 다민족대회 프라이어, 전도대학교(학정 허윤준 목사)가 준비한 다민족 전도지를 함께 나눠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간 전도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한사람의 영혼을 전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를 통해서 크게 역사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콜롬비아 단기선교 동영상 보고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8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던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 설교 김수태 목사, 합심기도 권캐더린 목사,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은퇴 후 한국으로 갔다가 잠시 뉴욕을 방문한 김수태 목사는 "일하시는 하나님"(빌2:13)이라는 제

목의 말씀에서 "성경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한다"며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의 하나님나라가 중요하다.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

# 선관위 "공정선거" 강력 세칙 발표

## 뉴욕교협 제 4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제42회기 뉴욕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의 마지막 임실행위원회(4차)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교협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관위는 세칙 수정안과 아울러 선거등록에 관해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신현택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의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보고 △제5차 준비기도회 모임 △원팔연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할렐루야대회 평가회 △교협건물관리 △선관위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은 건물도면을 다시 만들어 새 설계도로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세칙수정안은 목사 회장, 부회장 임후보자 등록금 각 3천 달러, 장로부회장 2천 달러, 감사는 등록비 면제로 결의됐다. 또 선관위세칙 3장 12항 "목사회 현역 회장, 부회장은 임후보할 수 없다"는 수정안은 총회로 이관됐다.

헌법 수정안으로 "감사 3인 중 목



뉴욕교협 제 4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 2인은 선관위의 서류심사를 통과 후 총회에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로 결의했다.

선관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이번 선거세칙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대의원(경정회장 포함) 등록을 2주전까지 마치고 당일등록은 없으며 누구나 ID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금전(식사대접)이 오가는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가 밝혀질 경우 후보자나 선거운동자 모

두 후보/당선 박탈, 투표권 박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목사는 "이런 조치가 금전선거 100% 근절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협이 되도록 하기 위해"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회에 공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사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 "각 회원교회가 파송한 총회의 평신도 대표 1인은 자동이사가

되며 신입이사는 회비납부와 함께 당해 연도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3인은 총회의 자동총대가 된다"는 결의됐다.

이외에 신규 회원 가입(김현태 목사)과 감사패 증정(이광희 목사, 김명옥 목사, 이준성 목사, 김재권 목사)이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주효식 목사 인도로 기도 황영송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설교 양희철 목사, 광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김용길 신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려움을 아는 지혜"(눅12:4-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양희철 목사는 은퇴 후 LA로 가 생활하고 있다며, 뉴욕에 잠시 와있으면 서 맨해튼 펜스테이션(세상의 끝)에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본문에서 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다. 죽은 후 우리에게 선택은 지옥과 천국뿐이며, 이 복음을 외쳐야 한다"며 "뉴욕 목사가 노방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장로연합회 제4차 다민족선교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주님의 지상대명령 다시 한 번...

### 뉴욕한인장로연합회 제4차 다민족선교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차 다민족선교대회가 8월 28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어를 비롯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영호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다. 장로연합회 회장 손성대 장로는 참가한 다민족을 환영했으며, 다민족교회 루이스 장로의 기도, 장로성가단의 찬양에 이어 17년간 뉴욕에서 다민족선교를 하는 래리 홀콤브 목사(Urban Nations Outreach 대표)가 시편 96:3을 본문으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이다"라는 말씀의 방법을 선포했다.

박마이클 목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설교에서 홀콤브 목사는 "주님께서 어떻게 타문화권에 선교하셨는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들이 뉴욕에 다와 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뉴욕의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헌송은 수정교회 중국총장팀, 로렌스리 목사의 헌금기도 후 문석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찬양과 선교나눔의 시간은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후원회장 정권식 장로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6개 참가팀이 나와 선교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언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팀은 한어권 3팀(할렐루야 국악찬양선교팀, 다민족농아인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중국어 플라싱커뮤니티처치(박마이클 목사), 퀸즈장로교회 러시아회중(송요한 목사), 히스패닉 엘살바도르교회(노엘 소사 목사) 등이다.

이어 박마이클 목사의 인도로 자신들의 언어로 주여 삼상을 부르고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참가한 6개 팀에게 선교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다함께 찬양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회회 8월 월례예배에서 김전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 김전 목사 교협부회장 출마 선언

### 뉴욕목회회 8월 월례예배서 밝혀

뉴욕목회회(회장 김전 목사) 8월 월례예배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욕대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전 목사는 오는 10월 뉴욕교협 부회장 출마 선언을 알렸다.

총무 김택용 목사는 광고 시간을 통해 김전 목사가 교협과 목회자들을 섬기려 용단을 내렸으며, 회원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전 목사는 친교시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출마이유는 "봉사"라며 교협을 위한 재정적 후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임용수 목사, 특송 김봉규 목사, 설교 김진화 목사, 축도 김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 담임)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계3:7-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빌라델비아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

다"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빌라델비아교회 안에서 이뤄져가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지만,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본문에서는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들이 모두 예수님의 관심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교회개혁 및 미자립교회 사례보고는 김희복 목사(뉴욕 주찬양교회 담임)가 다민족 목회와 전도에 대해 강조했다.

김희복 목사는 "한국에서도 중국, 일본,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왔다"며 "뉴욕에 와서는 영주권 때문에 10년간 머물다 그 후에 한국에 갔었는데, 금식기도 33일 만에 '다민족 목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현재 영어, 인도네시아, 중국, 히스패닉,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회중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의 시무가 201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1. 감리교, 성결교, 경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포함/가족사진 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제출방법

1. 우편주소: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01128-020
2. E-mail: andrejhong@hotmail.com(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2016년 9월 30일

###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전에 함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제출'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접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제16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 주최 제16회 창작성가의 밤이 27일 오후 7시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원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편 96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과 같이 영감으로 허락하신 시와 작곡으로 찬양을 올리게 됐다. 이 찬미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시인과 작곡자 그리고 찬

양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서건오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창작성가의 밤은 LA크리스천싱어즈(단장 김철이 목사), 주빌리 콰이어(지휘 김미경 사모), 엠마오 선교합창단(지휘 임중혁), LA사랑의교회 예수마 찬양대(지휘 황광선), 매노시스 챔버콰이어(지휘 엘레트 박),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16회 창작성가의 밤이 나성서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LA사랑의교회 예수마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나침반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에서 민경엽 담임목사와 종직자들이 19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 "영적 사드를 배치하라!"

### 나침반교회 설립 19주년 감사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교회설립 19주년 감사예배가 8월 28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에베에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추석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에리레네 찬양대의 찬양, 예배를 통한 통성기도와 정문수 장로의 기도, 그리고 김은형 집사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가 '영적인 사드를 배치하라!'(계3:14-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민경엽 목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는 공중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사전에 감지해 격파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들은 날마다 크고 작은 시험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학교 등에 영적인 도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 영적인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 다원주의, 물질만능주의, 동성애 등 성경에 어긋나는 도전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를 감지하기 위해 영적 사드를 배치해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 일본인교회사역을 위해 사임하는 본 교회 김데이빗 전도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회 설립 19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을 절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란교회 랜디김 밴드 초청 워십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 나성금란교회, 랜디김 밴드 초청 워십콘서트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는 랜디김 밴드 초청 워십 콘서트를 8월 24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랜디김(생수의강선교회)이 이끄는 찬양밴드 랜디김 빅밴드와 어디언스 오브원 등이 나서 '내 영혼이 그

휘 감칠이 목사), 그랜드 패스티벌 콰이어(지휘 강민석)가 출연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성가의 밤은 백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히 깊은데서', 'Your name is Great', 'David Dance' 등을 불렀으며 남가주의 1세대 찬양밴드 HIS를 이끌었던 이훈경 권사와 함께 플라보레이션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날 콘서트는 정상용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대상 추성우 등 총 25명 수상

### 비전케어 제2회 아트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국제의료구조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가 주최한 '제2회 비전케어 학생 아트 콘테스트'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비전케어주최 제2회 학생 아트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

시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둠속에 살아가는 시각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워즈덤 미션스쿨에 재학 중인 추성우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1등 11명, 2등 10명, 특별상 4명을 포함한 총 25명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백 달러의 장학금과 증서가, 각 학년 1등에게는 1백 달러의 장학금과 증서가 수여됐다.

추성우 군은 "시각장애인들은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멋진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상상의 세계를 모험하는 모험자"라고 작품에 대한 소개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의 참여비는 어둠속에 살아가는 시각장애우의 개안 수술지원금으로 전액 사용되며, 당선된 아트 작품의 디자인은 향후 비

전케어 티셔츠 및 다양한 홍보 물품에 활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제2회 학생 아트 콘테스트 수상자 명단이다.

△대상: 추성우(12) △1등: 케이 트 리(1), 김단비(2), 케이트 마르티네즈(3), 주정현(4), 김한음(6), 케빈 정(7), 크리스티 리(8), 김시연(9), 제니퍼 박(10), 민지원(11), 아

## 서부교계 게시판



### 기독교변증론 세미나

새언약초등학교(교장 제임스송)는 기독교변증론 세미나를 9월 9일(금) 오후 7시 개최한다. 강사는 휴 로스 박사(Reasons to Believe 대표). 주최 측은 강의실 정원이 300명인 관계로 참석을 원하는 자는 예약을 바란다.

▲문의: (213)487-5437

### 김사랑 목사 초청 집회

힐링캠프기독교원(원장 이선자 목사)은 김사랑 목사(한국 에베에셀 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집회를 9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714)220-7660

### 웨스트코스트 챔버싱어즈 단원추가모집

웨스트코스트 챔버싱어즈(West Coast Chamber Singers, WCCS 지휘 전현미)는 내년 4월 이태리 베로나에서 개최되는 이태리 국제 합창대회에 참가할 단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현재 교회 찬양대원이나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성악전공자들이다. 연습시간은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서부교회(1218 S Fairfax Ave). 전현미 지휘자는 현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며,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번 대회 연주곡들이 불협화음과 아카펠라로 연주해야 하기에 합창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문의: (310)381-9835

### 시니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가 주최하는 해피라이프 시니어 아카데미가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60세 이상 시니어로, 강의당 1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626)274-3234

###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IDRN)이 9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한여권, 영여권), 등록비는 195달러, 마감은 9월 10일까지.

▲문의: www.rescueNK.org

### 학생 드림 교실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최훈진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학생드림교실을 열고 있다.

▲문의: info@kgspe.org

### 이용훈 교수 찬양 간증집회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세계적인 오페라 테너 가수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성악가 이용훈 교수 찬양 간증집회를 9월 11일(주) 오후 4시 30분에 갖는다.

▲문의: (408)263-5100

론 심(12) △2등: 케런 마르티네즈 (12) △특별상(3등): 엘리 정(3), 정예지(10), 엔드류 정(10), 다니엘 김(12)(팔호 안은 학년).

(기사제공: 비전케어 미주서부)

## 복사방문

박성진 학장(아시아부)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내 중국어부 신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총장 제이슨 알렌) 아시아부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성진 학장이 26일 오후 본지를 방문해 새롭게 시작된 중국어부를 소개했다.

"한국부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은 목회학, 교육목회학, 성경사역학철학과로 진행되고 석사과정은 온라인으로 강의되고 있어 세계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LA에 온 것은 얼마 전 신설된 중국어 과정에 관한 홍보를 위해 왔습니다"라고 박성진 교수는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가 본교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한국부. 한국부는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이는 전임 학장으로 수고하신 두 분의 결과라고 치하한다. 세 번째 한국부 학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성진 학장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부의 발전과 안정을 넘어 아시아부로 거듭날 것'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그는 아시아부를 꿈꾸며 첫 타깃으로 중국부를 꼽아 왔다. 그가 중국을 향한 관심이 남다른 것은 아내의 영향도 크다. 박 교수의 아내는 중국인이었기에 중국 교회에서 14년을 사역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리더십들과 상의하면서 '한국

부만 아니라 아시아부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리더십이 동의 해주었고 지금은 중국부의 토대를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 일을 위해 그는 LA를 방문했고 일정 내내 중국교회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교 중국부 과정을 소개하는 일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박성진 교수는 간략하게 교과 과정을 소개하며 '교회를 위하여'라는 가치를 세우고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모든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말한다.

"실제적으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고 무작정 대규모 교회를 담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최적화된 교회 모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고 말하며 "본교가 속한 교단 국내 선



본지를 방문한 박성진 학장

교부에서는 도시를 벗어나 작은 규모의 한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고 개척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귀띔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는 1957년 개교해 지난 10년간 급성장을 이뤘다. 현재 재학생은 2,500명, 이중 한국부에 430명이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mbs.edu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한국부 사이트에서 입학지원 관련 서류들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본지 1582호 16면 박성진교수 인터뷰 참조].

(이성자 기자)

## 담임 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요건

- 1) 복음주의 보수 장로회 신학교 (M.Div)를 졸업하신 분.
- 2)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당회원 부목사 포함)되신 분.
- 3)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 4) 연령 45 - 63세.

###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 4) 신학교 졸업증명서.
- 5)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KPCA 회원이거나 회원 가입이 가능한 분).
- 6) 목사 안수증.
- 7) 추천서 (목회자) 2분.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 (동영상 파일).

3 서류 제출처: Elder Kye Hwang (황계현 장로 - 청빙위원장)  
7976 Augusta Ln., Concord, OH 44077  
Email : younghlee53@gmail.com

4 제출 기간: 2016년 9월 30일 까지

- 5 기타: 1) 서류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 2) 우편으로 제출 하신 분은 필히 Email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 5) 사역하신 교회마다 2분 이상의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장로)

2016년 6월 26일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미리 보는 2016 주요 교단 총회

다음 달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선을 시작으로, 예정합동 통합 고신 합신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의 교단들이 일제히 총회에 돌입한다. 국내 주요 교단 총회는 기침은 106회차, 장로교단은 101회차를 맞으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고 있다.

### 1. 막 오른 총회 시즌

## “한국교회 연합” 최대 이슈… ‘새로운 100년’ 청사진 그린다

◇한국교회의 연합 도모, 복음 수호=이번 총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안건 중 하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을 이루는 문제다. 한국교회교단장회회의 주요 7개 교단장이 각 교단 총회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결의를 요청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각 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지향한다. 내년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개혁교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시에 이단·사이비의 준동과 동성애·이슬람 확산 등의 외부 도전에 맞서 복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이끌 교회학교의 감소와 미자립교회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총회가 교회의 현안들을 다루는 실질적 기구라는 점에서 총대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기장은 총회 주제를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로 정하고 교단 개혁을 꾀한다. 예장고신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지를 논의한다. 예장합동은 해묵은 문제를 완결하고 다음 100년을 향한 출발을 선언한다.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사이비와 동성애·이슬람의 확산에 대한 대처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은 ‘동성애·동성결혼 대책위’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예장대신은 이단경계

주요 교단 총회 일정			
교 단	기간(9월)	장 소	주 제
예장대신	5~8일	천안 백석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	19~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예장합신	20~22일	대전 리움포레스트	
예장고신	20~23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응답하라! 교회개혁
예장통합	26~29일	안산제일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예장합동	26~30일	서울 천원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27~30일	화성 라비들리조트 컨벤션센터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일 제정을 검토한다. 예장고신은 다음세대 출석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성장 대안을 논의한다.

◇평신도들도 총회에 관심 가져야=총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총대(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조직돼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연합 관계를 총괄한다. 또 노회가 제출한 헌의와 청원 등을 처리하고(교단) 헌법 제정 및 개정, 교회 분쟁 수습 등의 직무를 처리한다. 총회는 개 교회 단위의 당회나 지역 연합의 노회와 달리 전국을 관할한다.

총회는 일반 신자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교단에 출석 교회가 소속돼 있다면 외면할 수 없다. 총회는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과의 교리와

그 형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가 치리하는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다. 장 칼뱅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인정한다. 대의민주정치의 원리에 따라 당회(개교회)→노회(지역)→총회(전국)로 이어지는 상향식 교회 질서를 갖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향식 치리 구조와는 완전히 반대다.

총회는 개회부터 산회까지만 총회이며 총회를 마치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총회는 파회를 선언한다.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이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위치한 노회들이 정기적으로 총회에 내는 상회비를 감면해달라고 헌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서남노회 등 5개 노회는 “각 노회가 부담하는 총회 상회비를 5-10% 낮춰 달라”

고 요청했다. 심도 수 감소와 경제 상황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전노회는 장로회신학대와 총회 신학 신학대학원에 이단 상담 과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고, 경북노회는 신대원 정원을 절

## 9월 교단별 총회서 ‘양대기관 통합’ 굳힌다

### 교단장회의 성명 발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다음 달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연합을위한협의회(한연협)는 24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간담회에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24개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연협은 성명서에서 “(한기총과 한교연) 양 기관은 8월에 통합방안을 각 총회에 헌의하고, 9월 주요 7개 교단들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연협 실무를 맡은 통합추진실무위원회(통추위)의 보고도 있었다. 통추위는 “총회 결의 후에 10월부터 각 교단의 사무총장·총무와 협의의 시간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연협은 지난달 26일 출범한 한기총과한교연통합협의회(한통합)이 개명한 단체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감당하고 있다. 박무용(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채영남(예장통합) 장종현(예장대신)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여성삼(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영식(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과 전용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등 7개 교단 대표자가 공동대표회장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주요 교단들 총회 이후에는 (교단장들이 바뀌는 곳이 많아) 우리가 다시 모이기 힘들다”며 “현재 모인 교단장들이 인수인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단장이 연합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장이 중심이 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울러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로써 이단과 동성애 문제, 이슬람 세력 침투에 대한 대책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을 신중하고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어디가 주도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내세워선 안 된다”며 “주요 7개 교단이 힘을 모아 연합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홍정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자칫 한기총과 한교연 외에 또 다른 연합기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교회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北 변화 심상찮아…선교프로그램 새로 짤 때”

### 통일선교 사역자들 물밑 움직임 빨라져

북한 고위인사의 잇따른 망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체제 동요 가능성 발언으로 북한·통일선교 사역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역 방향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북관련 사역자들은 “북한 체제가 심각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으로 개혁 4년차인 손모 목사는 “(영국공사 망명 등)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며 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올해 들어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북한군이 휴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소식도 북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봤다.

북한교회연합연구원 유관지 목사는 “어수선한 때일수록 차분하게 운영이사장에 임무보한 강진상(남울산노회·평산교회) 목사는 총회총대 횡수 부족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 인해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신중론도 나왔다.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백석대) 교수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에도 체제 동요 관련 발언이 많이 나왔고, 당시 국내 교회에서는 북한 교회 재건운동까지 일어났다”면서 “하지만 20년 넘게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체제 동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이

박영환 서울신학대 교수도 “남북관계가 딱 막힌 상황에서도 제3국을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부회장 김영식 목사는 “(통일 후) 북한으로 향하는 교인들은 그곳에서도 성도가 될 것”이라며 “가정·경제·교육·의료·복지·미디어 등 우리 사회 주요 영역별로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에서 일할 한국인 성도들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인의 사역 영역에서 발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20년 넘게 단파라디오를 통해 대북선교방송을 내보내는 초교파대북선교방송 TWR코리아 성준경 목사는 “북한 내부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외부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신중론도 나왔다.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백석대) 교수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에도 체제 동요 관련 발언이 많이 나왔고, 당시 국내 교회에서는 북한 교회 재건운동까지 일어났다”면서 “하지만 20년 넘게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체제 동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말했다. 리 인터넷서널 이승훈 회장은 “당시 집회에서 무척 감동을 받아 수원에 있는 김장환 목사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에 트루디 사모님(김장환 목사의 아내)이 때문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회고하며 “그 이후에 웅변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집회 참석자들과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기억들을 회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1월에 시작한 ‘만나고’는 극동방송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으로,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800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이웃을 만났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목회자, 군인, 국회의

장, 장관, 외교관, 대학총장, 유명연예인, 찬양사역자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출연자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 이발사 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삶을 나눴다.

11년 간 ‘만나고’를 이끌어 온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는 1월부터 600회까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대담을 이어갔다. 김 목사의 솔직하면서도 따뜻한 화법은 출연자들의 마음 문을 열었고 담백하고 진솔한 고백들이 함께 했다. 김 목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을 남겼다.

## 2. 예장통합

올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에는 비상근인 총회장을 상근직으로 바꿔달라는 노회들의 요구가 쇄도했다.

## 총회장 임기연장·상근직 전환, 예장통합 ‘핫이슈’

◇예장통합=9월 26-29일 경기도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리는 제101회 정기총회에서는 현 총회장 임기 및 재임 방식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노회와 충남노회 등 13개 노회가 “총회장 임기를 현행 1년 비상근직에서 2년 상근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헌의했다. 일부 노회는 ‘3년 상근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단 산하 66개 노회 중 20%에

육박하는 노회들이 같은 내용의 헌의안을 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강남노회 관계자는 “1년 임기로는 책임 있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렵고 연합사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급변하는 교계 안팎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전환과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현의안
예장통합
총회장 임기 변경
농어촌교회 목회자 청년 연장
총회 상회비 감면
신사참배 가결 회개선언문 채택

반으로 축소하도록 결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에 총청노회 정현교(경주 강서교회) 목사와 용천노회 최기학(서울 상현교회) 목사가 경합한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이성희(서울 연동교회) 목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선관위 목사부총회장 후보등록 재보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제10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에 임후보 한 김영우(총청노회·서천읍교회) 목사와 정용환(목포노회·목포시온성교회) 목사 모두 후보 확정을 보류했다.

선관위는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본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갖고 목사부총회장을 제외한 제101회 총회 임원 후보자들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

후보접수 마감 이후 현 총신대 총장인 김 목사의 이종직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차례 심의분과와 전체회의를 열고도 후보확정을 연기해 왔다.

이날 2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됐지만 총회의 관심을 끌었던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 안건’의 결론은 ‘보류’였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종직 논란과 관련해 김 목사의 후보반려를 찬반으로 결정하자는 의견과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총

돌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목사의 경우 ‘고발장 접수’라는 변수가 생겨 이를 조사하기 위한 5인 위원(이호연 김종택 변충진 목사, 이호영 윤영웅 장모)을 선정했다”며 “정 목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김 목사의 후보 등록 관련 건도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갖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의 건’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 선거법에 따르면 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고 총대들에게 공

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임후보자가 없는 재판국을 제외한 모든 상비부장 후보를 확정지었다. 또 기관장인 기독교신문 이사장 후보에 김영남(서인천노회·인천새소망교회) 목사, 기독교신문 사장 후보에 남상훈(북전주노회·삼례동부교회) 장로와 서병호(동전주노회·진안장로교회) 장로를 각각 확정했다. 반면 총신 운영이사장에 임무보한 강진상(남울산노회·평산교회) 목사는 총회총대 횡수 부족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 인해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독소조항이 문제”

### 교회언론회, 사회적 약자 보호 명분 민주시민 억압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보다 내용이 문제’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2007년부터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때마다 폐기된 것은 법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와 염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용어만 보면 약자를 돕는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종교를 포함시켰는데, 만약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당한 교리 비판이 금지된다면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손되어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동성애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증대로 사회적 부담이 증대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를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며 “법안은 만들기도 못하고 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다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정종교 밀어주기 예산집행 중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29일 “특정종교 밀어주기 예산 집행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의 원칙 없고 편법적인 특정종교 지원이 끝나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며, ‘종교편향’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교편향’

에 앞장선다는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정부는 사회통합적인 차원과 세수(稅收)의 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템플스테이’와 같은 노골적인 특정종교 ‘밀어주기’ 예산집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 극동방송 600회 특별생방송... ‘Again 1973’ 주제

극동방송 대표 간증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이하 ‘만나고’)가 26일 600회를 맞아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500여명의 청취자와 함께 전국 12개 극동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주제는 ‘Again 1973’. 1973년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를 회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게스트로 집회 현장에서 은혜 받

은 이들로 ‘리 인터넷서널’ 대표 이승훈 회장, 주안대학원대학교 윤순계 총재,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 영화배우 고은아 권사가 함께 했고 테너 정호윤, 서울대학교 비전 보이 스 총장단이 특송했다.

1973년 당시 27세였던 영화배우 고은아 권사는 “당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였는데 어머니가 함께 가자고 해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며 “아스팔트 바닥에 영상 스크린도 없이 오로지 마이크에서 확실하는 소리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이 어디에 앉아있어도 명확하게 들렸다”고



# 선교의 창 (61)

## 선교적 측면에서 바라 본 중세 수도원



송승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일반적으로 중세교회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천년의 시대를 가리킨다. 정확하게 말해서 로마제국의 어린 황제 로물루스가 오도바칼에 의해 폐위되어 로마제국이 붕괴된 476년부터 터키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기독교 역사상 중세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다. 특히 교황좌를 중심으로 한 정치싸움과 성지매매 등 교권이 극도로 부패

한 재산의 소유하게 되었고 세속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경건하고 열성적인 신자나 성직자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제국하의 교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초기교회의 이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들은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요 덧없는 것(고전7:31)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성화를 위해 금욕생활을 강조하는 수도원적인 삶에서 해답을 찾았다. 여기 가장 대표되는 두 교단이 있었다.

선교를 강조했다. 이런 영적인 맥락 가운데 그들은 대학전도에 힘써 교수들 사이에 세력을 얻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신학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 있다. 그 당시 이단에 빠진 이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은 전적으로 도미니크 수도사들의 업적이었다. 그 중 가장 탁월한 인물이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년)이다.

하였다.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신자의 생활과 불신자의 생활을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성령의 솟대는 사라지지 아니했다. 영적 계보의 세상과 대치되며 금욕적 삶을 추구하는 수도원을 통하여 이어졌다. 저명한 교황들과 교수들이 이 수도원을 통해 일어났다. 수도원은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속화되었을 때 이를 정화하고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수도원은 중세 사람들의 정신생활이나 문화에 있어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도미니크(Dominic) 수도원 프랜시스(Francis) 수도원

도미니크는 AD 1170-1221년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스페인의 칼

프랜시스(AD 1182-1266년)의 사람이다. 그는 아시시(Assisi)에

### 중세 1000년은 영적인 암흑기였다. 중세 수도원의 4대 정신은 금욕, 청빈, 전도, 봉사였다. 오늘 우리도 수도원의 선교정신을 새롭게 소화해야 한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가? 위기가 임박한 때에 우리는 중세 수도원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로가(Calaroga)에서 태어나 팔렌시아(Palencia)에서 수학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학하였고 신앙이 독실하였으므로 이단 배척에 관심이 컸다. 단테(Dante)는 말하기를 친구에게는 선하고 적에게는 두려운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그는 감독 디에고(Diego)의 천거로 모하벳 교도와 이단 무리를 교화하는데 열심을 썼다. 도미니크 교단은 프랜시스 교단과 마찬가지로 사치가 만연한 그 당시에 호화로운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옷을 걸치고 무소유 자로서 오로지 전도에 힘썼다. 그 정신은 결실을 통한 청빈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이었다.

서 부유한 포복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청년시절 중한 병을 앓게 되었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던 터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면과 삶의 변화를 체험한 그는 자기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그는 아버지의 포복상 장고의 물건을 팔아 다미안(Damian) 성당을 수리했다. 1208년 아시시에 있는 포티옹교회에서 "나의 전대에 굶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막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10:9-10)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설교하고 다녔다. 가족과 이웃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을 썼

전념하였다. 이 수도회는 일반대중들의 신앙이 수도회로 형성되어 나타난 유럽 고유의 민중 수도원이라 할 만하다. 프랜시스는 평민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실천과 구원사업에 목표를 두었으므로 학문에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도미니크 수도원의 영향으로 후에 대학에도 들어가 전도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큰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 두 수도원의 배출인물과 특성

중세의 수도원운동은 세속화, 비대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 가던 중세교회에 청량제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수도원은 교회조직 밖에 있으면서 교회와 다르게 활

동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허락을 받아 교단을 설립하였으며 때때로 교황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3세기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거의 탁발교단 출신이었다.

프랜시스교단 출신으로는 Hales of Alexander, William of Okham, Bonaventura, Duns Scotus, Roger Bacon 등이었다. 그리고 도미니크교단 출신으로는 Albertus Magnus, Thomas Aquinas, Savonarola 등의 대학자들과 Eckhart, Tauler 등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본받아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또한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켰으며 대학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으로 많은 일군들을 배출하였다.

아무튼 이 수도원운동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다. 도미니크 교단은 프랜시스 교단과 조직과 활동은 비슷하였으나 다른 점이 많았다. 도미니크 교단에는 그리스도의 병사(Militia Christi)모임이 있었다면 프랜시스 교단에는 참회하는 형제(Collegia Pogenitentium)가 있었다. 도미니크 교단은 처음부터 대학전도에 힘쓰는 반면 프랜시스 교단은 주로 평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도하였다.

#### 수도원 훈련의 원리

이에 대한 내용은 김명혁 교수께서 다음과 같이 잘 정리했다. 수도사의 지고선(至高善)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보방하므로 얻어지는 하나님 명상과 하나님 사랑의 '영적 완성'이었다. 수도사들은 막10:21의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받아 들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자기 부정과 징벌의 길을 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청결은 자신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청결케 하므로 얻어진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청결의 작업을 평생 계속하므로 영혼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고 하늘에 대해서는 부해져야 한다고 했다. '가난(poverty)'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표식이었다. 사람의 생명

이 소유의 풍부에 있지 않았다. 바질은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것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라고 했다.

수도원의 규칙은 개인적 소유권을 철저히 금했다. '순결'(chastity)은 육체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표식이었다. 가장 근질근육체의 요구는 성적 요구였다. 제롬은 "결혼은 땅의 백성을 증가시키고 독신은 하늘의 백성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복종'(obedience)은 자기 의지(self-will)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표식이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장과 선임자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교단은 죄악의 뿌리요 겸손은 선의 뿌리인데 겸손은 겸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 맺음 말

우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항상 생명이 솟아나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안정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정과 개혁은 손 등과 바닥처럼 떨어질 수 없다. 중세교회는 외형상 위세를 떨쳤으나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졌다. 교회가 국가의 보호 아래 세속화로 치달을 때 이에 대한 반동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 박해 시의 교회가 순교를 미덕으로 삼았다면 평화 시의 교회는 이를 금욕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금욕, 청빈, 전도, 봉사 등 이러한 가치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성경의 영원한 원리이다. 중세 수도원을 통해 세상을 정화한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요구된다. 교권과 탐욕과 허세와 탐문이즘으로 물들어가는 21세기 교회에 걱정이 많다. 짐을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 가속도가 붙듯 우리는 문제를 알면서도 혁신하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 굴러가는 셈이다.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렵기도 하다. 도미니크와 프랜시스 같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며 새로운 영적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jrson007@hanmail.net

## 태평양법률협회(PJI) 특별 보고서(상)

후원자 여러분, 벌써 올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으니 믿기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단체는 한해의 마무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귀년 주요한 승리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왔던 주요한 싸움들을 돌아보고자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드

렸었습니다. 그러나 올 2016년 상반기에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왔고,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에 대해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래의 케이스

들은 상반기 우리 단체가 맡아 해결해온 수많은 케이스들 중 오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래 소개된 케이스들 가운데 몇몇 케이스들은 아직 언론이나 법조계에도 공개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그간 우리 단체를 후원

해 오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이스라엘(어린이 이름)의 생명유지: 그간 PJI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베이비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이의

가정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를 위해 PJI의 변호사들은 새크라멘토 소재 연방법원과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of Appeal)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긴급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시설로 옮겨지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추가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PJI의 소송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거의 찾아갈 뻔하고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자녀의 의료관련 결정권을 박탈한 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양생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약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전 1:30 주일6부예배: 오후 2:30(성탄) 새벽기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약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약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드림)예배: 오후 12:30 내선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양생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ccca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1:20 영약예배(영-토): 오전 11:20 영약예배(영-토): 오전 11: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jcc.org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 주일6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2부: 오전 11:2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jcc.org	<b>등문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예배: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jc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j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약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kc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약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대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b>엘버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cv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약)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4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8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약)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중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약)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약)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약)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약)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약)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약) 영약예배: 오전 10:00 주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g.org Tel: 310-370-00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 펴기

## 니카라과

살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랜 동안 소식 전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작년 6월에는 아들 장영, 11월에는 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성장하여 새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뉴욕예일교회의 후원으로 마사야 빠까야 지역에 예수제일교회를 개척하여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12년 전에 개척한 산 베니또 연합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도한 깨브라다 온다 지역에 비센데 우엘베 할머니(82세)가 헌물한 대지에 뉴욕한인연합교회의 후원으로 깨브라다 온다 연합교회를 건축하여 지난 7월 31일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장로교회가 전도한 따빠따빠시 수재민 정착지인 감빠나 지역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육시설이 없는 이 지역에 지난 2월 말씀 유치원을 개원하여 14명의 유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뉴욕말씀장로교회의 후원으로 지난 8월 16일 니카라과말씀장로교회 헌당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보다는 이미 개척하여 성장한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바람직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니카라과 사역 20년을 넘어 21

년차가 되었지만 후원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어 저의 부족함과 사역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난 3월 이후부터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는 전혀 선교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올해 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은 물론, 네 교회의 목회자 사택과 한 교회의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기업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들의 섬김으로 교회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자, 교회 리더 세미나,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청소년 세미나, 임플란트, 치과 진료, 일반 진료, 임플란트, 안경 검안, 미용, 네일, 정보기도, 페인팅, 노방 전도, 방문 전도, 일일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 집회 등 다양한 섬김으로 풍성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말 딸 지혜 혼인예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경기중앙교회 선교부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중미 교회 건축 지원사역에 부족하나마 코디 역할을 맡아서 파나마 2/ 니카라과 2/ 엘살바도르 2/ 온두라스 1/ 중미 4개국 7 교회 헌당예배들을 경기중앙교회 김상의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단기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4일-18일 4개국에서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우물장비를 휴스턴 서울교회로부터 지원받고 훈련 받아 우물사역을 시작하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두 곳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모두 60곳에 우물을 얻었습니다. 주로 물이 필요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물을 파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낮은 장비로 최대 150-260피트(45-48m)까지 밖에 파 수가 없고 그동안 계속해왔던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인 선교사 사역자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의 요청에 그저 안타까



말씀장로교회



우물사역



목회자, 교사 세미나

울 뿐입니다. 새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적어도 300피트 이상(90m) 굴착할 수가 있기에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니카라과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12일 교계에 일반적으로 통보한 새 법에 따르면 종교 목적을 갖고 입국하는 모든 니카라과 방문자는 출발국 니카라과 영사관과 니카라과 내부의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점점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니카라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물론 카톨릭 사제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입국이 거부되는 일들이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과 19일에 만났던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새 법의 자료를 전달 받아 한인 선교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쿠바식 교계 통제 방식이라는 일지된 견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는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사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김연희 드림  
jeryoon0513@yahoo.com

(13면에서 계속)

- 기독교 대학들을 방어: 지난 2개월간 PJI는 SB 1146에 의해 기독교 대학들에 가해질 위협에 대해 유권자와 입법부를 교육시키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왔습니다. 이에 관련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우리 단체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십시오.

-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망명신청 지원: 지난 몇 개월 간 PJI는 더 많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망명신청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우리의 의뢰된 가운데에는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피해 피난을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데이트(강요된 발언에 반대하며): 작년 후반기에 PJI는 AB 775에 반대하여 연방정부에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낙태를 반대하는 임신클리닉에 정부보조 낙태를 장려하게끔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단체는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에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건국의 아버지"(표현의 자유): 지난 2월에 PJI는 샌디에이고 시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라 시의 고용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PJI는 샌디에이고 시에 우리 단체의 법적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샌디에이고 시장은 이러한 시의 방침이 극단적이며 집행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였고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 이동식 낙태반대 임신클리닉 변호: PJI는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낙태반대 클리닉을 변호하고 있으며 PJI와 제휴하는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해 이동식 전도의 출법을 원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이유 없는 라이선스 거부로 난관을 겪고 있었습니다. PJI가 지원해온 제휴 변호사는 결국 캘리포니

아가 새로운 라이선스의 획득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이동식 클리닉의 출법을 가능케 했습니다.

- 업데이트(커먼 코어 소송): 교육을 상대로 진행해오던 두 소송 중 한건을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교육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현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커먼 코어 테스트를 보지 않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사전통지의 의무를 저버렸습

니다. - 체포된 전도자의 변호: 샌디에이고 시 공동도로에서 전도를 하다 체포된 아델모(Adelmo) 형제의 변호를 맡았는데, 아델모 형제가 체포된 주된 이유는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종교적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PJI의 변호사들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검찰측이 우리 단체의 개입과 입장을 검토한 후 재판 하루 전날 아델모 형제의 형사케이스를 취하함으로써 케이스는 종결됐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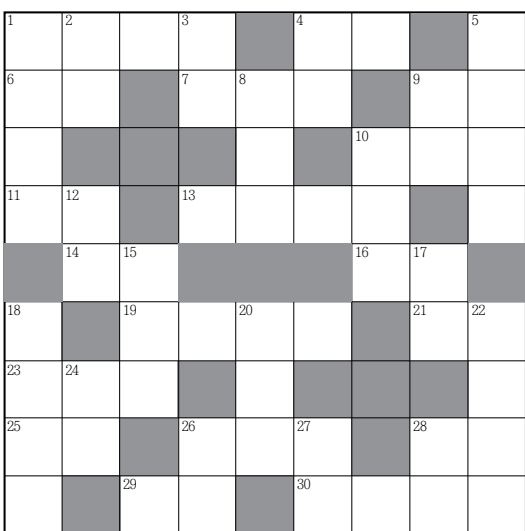
니다. - 여성성경학교: 북가주의 교외에 위치한 한 교육구가 지난 수년간 지역 교회에 허용해왔던 여성성경학교 전단의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PJI는 교육구에 법이 교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법적 요구서안을 전달했고, 교육구는 여성성경학교 전단이 다시 배포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 홈리스 전도: 벤츄라 소재의 harbor 선교 교회(Harbor Missionary Church in Ventura)를 돕고자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에 법정의 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법정 전 단계의 지방법정 판사는 홈리스들을 위한 전도에 교회의 건물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올해 3월 항소법정이 이러한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교회측의 편에 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이 몇년전 PJI가 승소한 교회부동산 케이스를 주목해 준 것도 만족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rju@pji.org

## 십자말 • Cross Word (138)

###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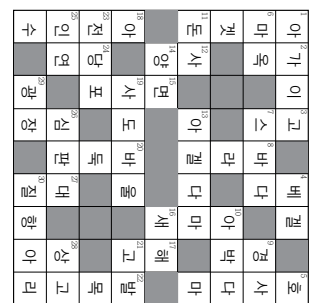
### <가로 푸는 열쇠>

- 고린도교회 신자인데, 바울이 반가이 맞음(고전16:17).
- 베냐민지파의 한 족속의 조상이다(민26:35).
- 갓 성의 블레셋 왕 아가스의 부친(삼상27:2).
- 유다지파에 있는 마세라 근처 골짜기(대하14:10).
- 비스듬히 기울어짐(행27:39).
- 아하수에로 왕의 일곱 시종관 중의 한 사람(에1:10).
- 돼지우리(명).
- 피발이라는 뜻(행1:19).
- 두 면(출32:15).
- 신년(창47:18).
-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변했다(골1:1).
-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행위(에6:2).
-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는 곳(명).
- 내력, 연분(왕상3:1).
- 사사, 왕, 제사장들이 재판할 때 앉았다(롬14:10).
- 장사를 하는 사람(잠31:14).
- 넓은 마당(느8:16).
-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에4:2).

### <세로 푸는 열쇠>

- 므깃도 산의 별명이다(계16:16).
- 집(사5:8).
- 소아시아 서남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21:1).
- 소바 왕 하닷에셀의 수부, 늦이 많음(대상18:8).
-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김(고사성어).
- 욥의 친구 엘리후의 부친(욥32:2).
- 연행이 경솔하고 천박함(삿9:4).
- 다윗의 군대장관의 한 사람(대상12:18).
- 겸손하여 응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함(행10:29).
-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박(상식).
- 바다, 호수, 하천이 합치는 곳의 반도보다 작은 육지(사11:15).
- 자기 눈에 물한다는 뜻,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대로 함(고사성어).
- 바둑 두는 판(왕상7:17).
- 발목에 거는 고리(민31:50).
-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할 것임(눅23:41).
- 염통(삼하18:14).
-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판 사람 앞에서 대면시켜 따짐(욥9:32).
- 코끼리 어금니(야5:14).

### 십자말 정답



#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 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벤티브(뉴욕, 미국)  
유럽기독교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추천도서



풀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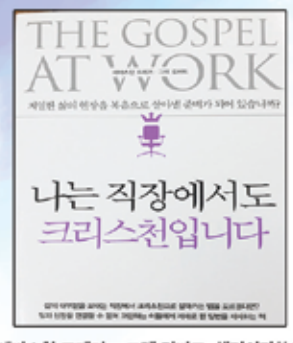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김관성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세바스찬 토퍼·그렉 길버트, 생명의말씀사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6)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40)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우리는 지금까지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Biblical Foundations), 신학적 기초들(Theological Foundations), 철학적 기초들(Philosophical Foundations), 역사적 기초들(Historical Foundations), 사회학적 기초들(Sociological Foundations), 심리학적 기초들(Psychological Foundations), 그리고 커리큘럼의 기초들(Curricular Foundations)에 대하여 차례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 범주는 미국 앤드버 뉴튼 신학(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의 교수인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로버트 패즈미노(Robert Pazmino) 저서,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에 나온 것이며,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감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온 여러 가지 기초들이 우리의 사역에 약영향을 끼친다거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핵심적으로, 그래서 보다 더 현장에서 유용하고 유효하게 그 기초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기초"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훨씬 더 제대로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택과 집중(Discretion and Concentration)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루었던 다양한 기초들 중 몇몇은 버리고 몇몇만 수용하여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한꺼번에 다 내

어기"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각자의 목회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초들을 재구성하는 것 또한 우리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누군가 모두에게 다 딱 맞아 떨어지는 쉽고 간단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기초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지만, 익히 경험해왔듯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현장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소고를 필요로 합니다. 각자의 토양에 맞는 기초를 다지고 수고를 다하고 나서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선택과 집중-사역현장의 형편 살펴 순차적으로 내면화 핵심적 신념 갖기-믿는 바를 내면화해 실천으로 나타내

있어서 그 "기초적" 자료로서도 이 책에서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독교교육의 기초들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사역자들은 이 책을 공부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 복음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기독교교육 입문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논의해온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끝맺음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해볼 현실적인 이슈 한 가지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슈는 바로 여태까지 이야기해 온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때로는 너무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위에서 현장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벅차고 너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듯 하며, 또한 그래서 실상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사역이 논의해왔던 기초들 위에 기반하게 되고, 또한 그 기초적 통찰들이 우리의 사역에 녹아지게 되는 일이 사실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사역의 장의 형편을 살펴서 순차적으로 내면화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위해 기초로 삼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이 먼저 방점을 두고 시작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언제나 섬기는 유스 그룹(Youth Group)들을 위해 우선은 성경적 기초에 방점을 찍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초 중에도 기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른 범주들을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학적 기초와 커리큘럼의 기초가 약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또한 보다 시급히 필요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두 범주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과 다음세대들은 이민자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 구조, 문화, 그리고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반드시 잘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야 할지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기초가 너무나 약하였기 때문에 이 범주에 신경을 더 쓰고 집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이야기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적 이

실 것임을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 신념 갖기(Making the Foundations Core Beliefs)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함께 논의해온 기초들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그 이해된 것이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사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탈보트 신학교(Talbot School of Theology at Biola University)의 기독교철학교수인 제임스 포터 모어랜드(James Porter Moreland)는 그의 저서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에서 인간이 가지는 신념에 대해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최소신념(Minimal Beliefs)입니다. 이는 머리로는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고 옳다고 믿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변적 신념(Marginal Beliefs)입니다. 이는 머리로는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고 옳다고 믿고 있지만 행동이나 실천은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핵심적 신념(Core Beliefs)입니다. 이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바를 내면화하여 행동이나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 즉 그 믿는 바가 그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념을 뜻합니다.

(16면으로 계속)

##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 매일가정예배

### 월 주님이 오신 목적(마20:17-19)찬202장

본문에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체형을 당하셨습니다(18-19).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온 인류 속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고난임을 보인 것입니다(롬1:16). 둘째,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19).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은 최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시기 위하십니다. 성

부는 그것을 사용하셨고 성자는 그것을 자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의 완전한 죽음을 알리는 일이며 이는 완전한 부활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부합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 화 십자가 중심한 간구(마20:20-28)찬455장

세베대 아내의 간구에 대한 주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참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십자가의 이해 없기가 그릇되었습니다(22-23). 변화산의 제자들이 황홀경에 들어가 구한 기도처럼 한마디로 십자가를 고쳐지 않은 간구였습니다. 둘째,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구했습니다(22-23). 그리스도는 구원주

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불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잔을 마실 수는 없어도 그것에 근거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섬김의 길을 가야합니다(28).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섬김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다.

### 수 치료의 조건(마20:29-34)찬98장

두 소경의 눈뜨임의 기적을 통해 현실문제에 어떤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그는 소리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30-31). 현실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시는 주님을 향해 소리친 것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고 외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굶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30). 제자들의 방해도 아랑곳없이 더욱 더

외쳤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셋째, 소원을 아뢰는 믿음입니다(33). 주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그는 눈뜨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뤄 자신의 구주되심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집시다.

### 목 주를 위한 헌신(마19:23-30)찬208장

하나님나라의 왕은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27). 주를 위해 모든 재물을 버릴 줄 몰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리에 굴복되어 다스림을 받은 것만이 구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 곧 참된 헌신이 구원입니다. 둘째, 오직 주를 전심

로 따라야 합니다(27).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신6:5) 주를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롬12:1-2). 그때 주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셋째, 헌신자에게 구원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의 질문, 주님의 답변 28-29절) 이 생애에서도 복을 누리며 오는 생애도 상급을 얻습니다. 복을 주고 주를 위한 헌신자가 돼 귀한 복을 누립니다.

### 금 주가 쓰시는 사람(마21:1-11)찬 249장

본문에서 우리는 주가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배웁니다. 첫째,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5). 주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임성한 것처럼 처음도 겸손 마지않고 겸손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마5:3). 그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사57:15). 둘째, 즉각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1-3).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자기주

장을 포기하고 즉각 양보하고 항복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용단있는 순종자 쓰십니다. 셋째, 주께 항복하는 자를 쓰십니다(8-9). 예루살렘 임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자기 겹옷을 벗어 길에 놓고 그를 환영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주가 쓰십니다. 우리에게 자원의 심령이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토 기도하는 집(마21:12-17)찬549장

교회는 말씀의 집이며 동시에 기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참 기도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말해줄까요? 첫째, 편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12). 본질을 잃고 문화적 자랑거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길로의 예배와 참된 기도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13). 기도는 탐욕을 가지고 드러질 수 없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 구했

기 때문입니다. 셋째,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14-17). 주님이 성전에서 하는 약한 자의 치료와 어린이의 호산나찬송을 기뻐하신 것은 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인 교회는 이런 요소가 총망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집인 우리마음에 의식과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찬송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사도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2643-82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철야예배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3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후 5:30 (토요일은 섬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대문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02)2-786-6579, 사택(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2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심야예배: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역역시 부평구 신곡2동 1909 (140-03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엄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사랑한다, 내 딸”

## 허핑턴포스트, 어린 딸을 상대로 주의해야 할 말 11가지 소개

부모로서 우리는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부모들은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게 되고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고 있는 아이들은 벌써 어른이 다 되어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만, 막상 던지는 말은 항상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다.

그래서 허핑턴포스트는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엄마로서 하는 말과 행동이 딸들에게 제약이 되고 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말 11가지를 소개한다(11 Phrases That Disempower Your Daughter).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계속해서 딸의 내면의 지성이 아닌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해로울 수 있다. 늘 외모를 우선시하면 스스로에 대해 건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기대를 만들 수 있으며, 정신을 닦는 게 아닌 외모를 개선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게 될 수 있다. “너는 정말 강하구나”, “너는 참 똑똑해”, “너는 아주 착해” 같은 말로 칭찬해줄 수 있다. 외모를 칭찬하고 싶다면 딸의 자아와 연결된 타고난 아름다움을 칭찬해준다. 외모를 지닌 사람이 아닌 외모 자체만을 칭찬하지 않도록 하라. “네가 미소 지을 때 얼굴이 밝아지는 게 난 참 좋아”와 같은 말이 있겠다.

### 딸이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제대로 표현해야 제약이 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말 주의하도록

“내가 해줄게.”

우리는 딸들을 아기 취급하며, 직접 해야 하고 충분히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해주겠다고 나설 때가 많다. 이것은 어머니의 본능이다. 나는 역자로 뒤로 물러서느라 늘 애를 먹는다. 위험하지 않은 한, 딸이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게 해준다. 끼어들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딸은 우유를 직접 따라 마실 수 있고(잘못되어봤자 얼마나 큰 일이 날 거라고?), 자기 방을 치울 수 있고, 친구들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독립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내 꼴이 엉망이야!”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딸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게 된다. 당신은 딸의 최초의 역할 모델이며 여성이 된다는 것을 최초로 이해하는 창구다. 딸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좋지 않게 생각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

“나는 너무 뚱뚱해”, “오늘은 내가 꼴이 엉망이야” 같은 말은 딸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당신의 딸이 그런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걸 당신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만 물어.”

특히 딸이 인생의 힘든 변화기를 겪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감정을 숨기라는 의미나 다툼이다. 나는 이런 감정들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의미와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우리를 인류로 만들어 주며,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점이 되어 준다. 딸을 이해할 수 없거나 딸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딸을 인정해주어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라.

“좋은 것만 다 가질 순 없어!”

인생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는 신념체계를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 딸들은 들은 말을 내면화하고 그걸 사용해 내면의 대화를 나눈다. 딸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발상을 하고 노력하면 끝없는 기회가 존재하는 세계를 보여주자. 좋은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졌을까?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니.”

이렇게 말하면 딸은 당신이 딸의 실패를 바라고 있었으며 당신이 옳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인 우리들은 딸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는 것을 막으면 딸은 정체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좋지 못한 판단을 한 이후에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야.”

이런 말을 하면 딸들은 꿈, 목표, 욕구가 여성 몫으로 정해진 것들에만 한정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따

라 우리 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버리지 말자. 알다시피 여성의 능력은 무한하며 마음먹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방식, 지구에 기여하는 방식은 딸의 능력과 열정이 정해져 있다.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부모들은 ‘여자답게’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손톱 칠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아이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자 아이 사이의 선은 어디에 있는가? 여자 아이, 말괄량이, 예쁜 아이 등등의 말은 우리의 딸을 상자에 가둔다.

시간이 지나면 딸이 변하고 성장해야 하는 때에 이 상자를 깨고 나올 수가 없어진다. 핑크색 옷을 좋아하는 여자 아이에 대해 다른 이름은 필요 없다. 농구를 하고 손에 흙을 묻히고 메이크업을 하는 여자 아이에 다른 이름은 필요 없다. 우리의 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신의 길을 따라 진화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자.

“너는 중간에 포기할 거야.”

포기란 말은 하지 말자. 호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기회와 모험을 찾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감각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연결을 갖게 된다. 내 클라이 언트 한 명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몇 번 들었던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주는 제한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다양한 일에 흥미를 가진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되새기야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은 아이의 창의성의 흐름을 막고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나름의 방식과 페이스로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키워 주라.

“너무 많이 먹지 마, 뚱뚱해진다.”

절대 딸에게 뚱뚱하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체형에 연결시키도록 가르치지 말라. 이런 형

태의 바디 웨이밍(body shaming)은 딸에게 자존감과 자기가 부족한 인생을 줄 뿐이다. 딸이 어머니인 당신의 말에 부여하는 가치는 평생 계속되는 섭식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넌 좀 더 (.....)해야 해.”

좋은 본보기 보여 딸들을 이끌자. 딸들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집에서,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당신의 말의 가치, 진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줄 당신의 말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뚱뚱”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말라.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말이다. 정말로 딸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주고, 함께 산책, 요가, 요리 등 건강한 활동을 하라.

### 연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면에서 계속〉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가시밭, 돌밭, 길가에 놓인 씨앗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우리 지체들과 다음세대들을 바른 방향으로 자라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그것은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초들은 진정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온 한민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을 내면화하여, 이들을 최소 신념이나 주된 신념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 신념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sinaichung@yahoo.com

### 새 음반

## 성가곡, 오페라와 아리아, 가곡 등 총 3장

테너 오위영 목사

테너 오위영 목사의 음반이 출시됐다. 이번엔 출시된 음반은 총 3장으로 △성가곡 모음집 ‘심자가 그늘아래’ △오페라와 아리아곡을 모은 ‘Aria&Song’, 그리고 △가곡을 엮은 ‘나의사랑 나의노래’다.

테너 오위영 목사는 1999년 총신대학신대원을 졸업하고 2001년 도미,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에서 M.Div학위를 받았으며 ITS에서 Th.M과정을 이수했다.

2007년부터 웰치미선대학교에서 보컬전공으로 MAM 과정을 시작했으며 로버트 맥널 교수로부터 2013년까지 사사 받았다.

2012년에는 APU에서 모차르트 음악으로 서티피케이션트 과정을 이수했으며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인수 교수로부터 성악지도도를 받고 있다.

오위영 목사는 현재 그레이스미션콤파이어와 모닝스타미션콤파이어에서 지휘자로, 라크마, 보치엘레스터, LACS, 한국외국어대학교 합창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영혼사랑의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디즈니홀에서 오페라 “윤희주”의 주연으로 활약하는 등 LA지역에서 다수의 음악회에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음반구입에 대한 문의는 owyika@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뉴욕교협 제 43회기 정·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등록기간: 2016년 9월 19일- 9월 23일(금) 정오 12시까지
- 등록장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사무실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1414, Fax.(718)279-5838

#### \* 제 11조(자격)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5. 회장과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년 이내로 제한한다.
6.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7.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8.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9.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0.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 \* 제 12조(등록서류) \*

-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2. 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3. 본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명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4. 증명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5. 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6. 입후보 소견서 1부
  7. 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US\$3,000.00
  8. 부회장(목사, 평신도) 입후보자 등록금 US\$2,000.00의 납입증명서 1통, 감사 입후보자는 등록금 없음
  9. 여권용사진 1매
  10. 목사 안수 증명서 1통(copy)

10. 여권과 운전면허증 (copy)
11. 교회 현황서(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
12. 감사 입후보자는 3, 4, 6, 11항을 면제한다.
13.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거위의 청문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 \* 제 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 \* 제 14조(선거운동)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 토론, 광고 및 홍보행위와 선거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1414, Fax.(718)279-5838  
E-mail:nyckcg@gmail.com / www.nyckcg.org

회장 이종명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섭 목사